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3. 18(목),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윤균(오심), 이경미,
이정수, 이찬희, 임영애, 전봉희, 정명섭, 천득염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순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공주 갑사 대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3	의성 대곡사 범종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4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공개
5	여수 흥국사 대응전 주변 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2차)	공개
6	옥천 이지당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개
7	대전 회덕 동춘당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8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호성전 복원사업(재심의)	공개
9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묘사채 건립공사(2차)	공개
10	여수 진남관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재심의)	공개
11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유희비 설치	공개
12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4차)	공개
13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공개
14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15	예산 수덕사 대응전 난간 설치 및 계단 해체보수 설계 검토	공개
----	----------------------------------	----

【보고사항】

16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 야옹정 주변 임목 벌채 및 조림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농사용 창고 신축 -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저온창고 신축 	공개
----	---	----

- 영주 가흥동 마에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영주 한절마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2차)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창고부지조성(2부지)(변경허가)
- 나주 불회사 대응전 주변 불회사 진입로 주변환경정비
-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주변 서굴암 주변정비(2차)
-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문화재해설사 대기소 설치(변경허가)
-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주변 이주단지 대지조성(변경허가)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
-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기림사 진입로 정비공사
-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석축 정비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등 주변 무량사 주변정비사업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숲가꾸기 사업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동암 주변정비사업(재검토)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 13건 탁본
- 청양 장곡사 하 대응전 주변 요사채 개축 및 주변정비
-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 주변 영암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배전스테이션 구축 지중화 공사
-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삼성각 난간대 설치사업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화장실 신축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종무소 철거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2동 정비
- 예천 야옹정 주변 농막 설치
- 강릉 오죽헌 야간경관 조명사업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데크 설치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농지(전) 조성(2차)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3-001

1. 순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팔마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팔마비」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21.01.21.)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1.28~'21.02.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 「순천 팔마비」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95 (영동 1번지)
 - 지정일 : 1980. 06. 0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 소유자(관리자) : 순천시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95 (영동 1번지)
 - 조성연대 : 1617년(광해군 9년)
 - 수 량 : 1기
 - 규 격 : 비고 160cm, 비폭 76.0cm, 대좌 140cm(가로), 76.5cm(세로), 40cm(높이)

- 지정면적 : 29.5m²(보호구역)
- 재 질 : 사암
- 형 식 : 비석

라. 현지조사의견(2020.07.13. / 문화재위원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7. 13.	대상문화재	순천 팔마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조선시대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팔마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문화재명 : 팔마비(八馬碑)
- 신청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지정별 : 순천 팔마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95(영동 1번지)
- 규모 : 비석 1기(높이 160cm, 너비 77.5cm), 대석(가로 140cm, 세로 85cm, 높이 40cm)
- 재질 : 석재
- 시대 : 1617년(광해 9)

순천 팔마비는 1281년(충렬왕 7) 이후에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승평부(순천부)에 건립한 비석에서 유래한다. 최석의 본관은 경주이며 최치원의 12세손이다. 최석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건립한 사실은 『고려사』의 열전(列傳)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수령이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최석은 승평부에서 기증한 말을 타고 서울(개성)로 돌아온 후 자신이 기증받은 말과 자신의 말이 승평부에 있을 때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최석의 청렴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웠다고 하였다. 최초의 팔마비가 세워진 시기는 최석이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개성으로 떠난 이후로 추정된다. 『고려사절요』 충렬왕 7년(1281) 12월의 기사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순천도호부 기사에서는 세월이 오래되어 비가 넘어진 것을 최원우(崔元祐)가 다시 세우고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현재의 순천 팔마비는 1617년(광해 9)에 순천부사(順天府使) 이수광(李睟光)이 증건한 것이다. 현재 순천 팔마비의 음기(陰記)는 이수광이 작성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 『승평지(昇平誌)』에는 ‘중건팔마비음기(重建八馬碑陰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승평지』는 순천부사 이수광이 1618년에 편찬한 전라도 순천부의 읍지이다.

이수광의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 읍민들이 세우고 최원우가 다시 세웠던 팔마비는 정유재란 때 파괴되었고, 이수광이 순천부사로 부임한 이후 순천의 원로인 허건(許鍵), 생원 정지추(鄭之推) 등의 협조를 받아 증건하였다. 원래 팔마비에서는 ‘최석팔마비(崔碩八馬碑)’ 다섯 글자가 있었으나 ‘팔마비(八馬碑)’ 세 글자로

바꾸었으며, 이는 중국의 타루비(墮淚碑) 고사에서 연유하였다고 하였다. 이수광은 음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팔마비를 증건하는 이유는 이 비를 보면 청렴한 선비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일에 힘쓰고, 탐욕스러운 자는 두려워하며 선하지 않은 마음을 고치려 할 것이니, 관리들의 본보기가 되고 풍속과 기강에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순천부읍지(順天府邑誌)』에 의하면, 이수광이 증건한 팔마비의 ‘팔마비(八馬碑)’ 세 글자는 진사 원진해(元振海)의 글씨이고, 음기는 이수광이 짓고 동지사(同知事)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다.

이수광이 증건한 팔마비는 조선 후기에 순천부를 방문했던 시인묵객들의 시에서 늘 거론되는 대상이 되었고, 순천부의 읍지나 지도에 반드시 나타나는 순천의 상징물이 되었다.

순천 팔마비는 원래 순천읍성의 남문 밖에 건립되었으나 1930년대에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인 중앙로로 옮겨졌다. 1977년 8월에 팔마비의 보호를 위해 비각을 세웠고, 2014년에 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처리를 하였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팔마비와 연계된 팔마정신을 주제로 하는 팔마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순천 팔마비는 13세기에 처음 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유래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이수광이 증건한 비의 실물이 현전하여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최석을 청렴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대의 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청렴한 공무원상’을 상징하는 희귀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순천 팔마비의 역사성과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과 활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7. 13.	대상문화재	순천 팔마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고문서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팔마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순천 팔마비 지정 가치와 의의

- 문화재명 : 순천 팔마비(八馬碑)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95(영동 1번지)
- 건립년대 : 1617년(광해군 9)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순천 팔마비는 원래 팔마비는 「최석팔마비(崔碩八馬碑)」로 고려시대 순천부사 최석의 청백리 정신을 표현한 비로서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송덕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 열전 인물조와 세가에 최석 부사의 청렴함과 비석 건립의 기록이 전하고, 1617년 순천부사 이수광이 고려시대 송덕비의 효시인 팔마비의 의미를 찾아 본보기로 삼기 위해 다시 세운 것으로 고을 수령들의 청렴을 대표하는 비로서 의미를 새겨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석이다.

팔마비는 순천부읍성 남문(연자루) 밖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에 도심 정비 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고, 팔마비와 연계된 팔마정신을 주제로 순천시는 매년 ‘팔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2019년 38회)

팔마비의 최초 건립은 1281년 12월 이후로 추정된다. 최석 팔마비(崔碩八馬碑) 관련 기록은 『고려사』 권121, 열전 34, 양리 「崔碩」조에 보이는데, 최석은 충렬왕 때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승평부사가 된 인물로 그가 임기를 끝내고 중앙으로 복귀할 때 승평부에서는 태수가 갈려 갈 때마다 말여덟 필을 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말을 주되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가게 하였는데, 최석이 이임할 때에도 역시 고을사람들이 말을 바치면서 좋은 것들로 고르기를 청하니, 최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은 능히 서울까지만 가면 족할 것이니 골라서 무엇 하겠는가?”하고, 집에 이르러 그 말들을 돌려보내려 하니 고을사람들이 받지 않으므로 최석은 “내가 승평에서 올라올 때 망아지를 낳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망아지까지 함께 딸려왔으니 이 또한 나의 탐욕이 된다. 지금 이 말들을 그대들이 받지 않으려 하니, 이것은 내가 속으로는 탐내면서 겉으로만 사양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닌가.”하고 그 망아지까지 함께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증마의 폐단도 끊어졌고 고을사람들이 최석 부사의 덕을 기

리는 비를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하였다고 한다.[『高麗史』卷121, 列傳 第34, 良吏 崔碩 : 崔碩忠烈祖人 登第累遷昇平府使 秩滿入爲秘書郎 昇平故事 每太守替還 必贈馬八匹 倅七匹 法曹六匹 惟所擇 及碩替還 邑人進馬 請擇良 碩笑曰 馬能到京 足矣 何擇爲 至家歸其馬 邑人不受 碩曰 吾守歟邑 有馬生駒帶來 是我之貪也 汝今不受 豈知我之貪而爲貌辭耶 并其駒受之 自是其弊遂絕 邑民頌德立石 號八馬碑]

또 이와 관련된 역사기록으로는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7년 12월조에도 보인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팔마비(八馬碑)'라 이름하였다고 앞의 기록과 같이 기록된다.[以昇平府使崔碩 爲秘書郎 昇平舊俗 每邑守替還 必贈以馬 太守八匹 倅七匹 法曹六匹 惟所擇 及碩 還邑人 以故事 持馬請擇 碩笑曰 馬能至京足矣 何擇爲 至家 以馬歸之 吏不受 碩曰 吾守汝州 吾有牝馬生駒 今帶以來 是我之貪也 汝之不受 豈非知我之貪 而以我爲貌辭耶 并其駒授之 自是 其弊 遂絕 州人頌德立石 號八馬碑]. 이 고려 때의 팔마비 기록은 같은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 전라도 순천도호부 고적조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전한다.

현재 순천에 전해지고 있는 팔마비는 1616년 순천부사로 부임한 이수광이 지역의 옛 자취를 찾다가 비석이 정유재란 당시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알고 1617년(광해군 9) 비를 중수, 건립하게 되었다. 이수광이 편찬한 『승평지』에 「중건팔마비음기(重建八馬碑陰記)」에 전하고 있다.

『승평지』의 「중건팔마비음기」에는 정유재란 때 파괴된 것을 광해군 때 이수광 부사 재임시 중건한 내력이다. 1617년(광해 9) 중건 당시 부사와 함께 순천향로 허건(許鍵), 생원 정지추(鄭之推) 등 재지유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것과, 당초의 비명은 다섯 글짜인 '崔碩八馬碑'였던 것을 '八馬碑' 세 글짜로 바꿨다는 것, 그리고 세 글짜로 바꾼 까닭이 중국의 타루비(墮淚碑) 고사에서 연유하였다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

중수된 팔마비는 1617년(광해 9)에 이수광이 중건한 것으로서 전면에는 八馬碑라 양각으로 새겨진 비명이 있고, 규모는 비석의 높이 160cm, 너비 77.5cm, 대석 가로 140cm, 대석 세로 85cm, 대석 높이 40cm이다.

○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지정 가치

팔마비의 전신이지 유서가 되는 최석 팔마비(崔碩八馬碑)는 고려시대 청백리 정신을 표현한 비로서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송덕비의 효시, 청백리의 비라고 할 수 있다. 비의 건립 또한 지역의 백성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후 건립된 현재의 「팔마비(八馬碑)」는 400여 년전인 1617년(광해 9)에 순천부사 이수광이 증건한 팔마비로 단순한 선정비가 아닌, 후세 목민관들의 거거의 바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담은 ‘적폐청산비’라 할 수 있다. 이수광은 팔마비의 증건의의를 비문에서 ‘앞으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청렴한 자는 혼연히 공경하여 더욱 그 지조를 지키는 데 힘쓸 것이며, 탐욕한 자는 크게 마음을 깨우쳐 不善을 고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 비가 세워진 것이 오직 관리에게만 해당되는 본보기가 아니라 고을의 풍속과 기강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이수광, 『승평지』 「증건팔마비음기」)’라 하고 있다.

팔마비는 전통시대의 순천 지방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신을 규율하는 엄정한 좌표가 되었으며, 고을사람들 편에 서서 위민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팔마비는 예 순천부사 이수광이 증건한 것으로 전면에 ‘八馬碑 3자가 양 각되었고 후면에 음기가 있는 비로 현재 순천시 영동 1번지에 잘 보존되어 있다. 이수광이 편찬한 『승평지』 「증건팔마비음기」에도 비의 음기 내용이 나와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비석의 건립시기, 건립의 역사적 의미, 비석의 규모와 특성 등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순천 팔마비를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맑고 깨끗한 시민 정신이 대대로 계승되었으면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7. 13.	대상문화재	순천 팔마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문헌학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사항 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붙임1)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붙임2)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사항 없음 <보호물>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해당사항 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사항 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사항 없음		
종합의견	조사 대상 순천 팔마비는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처음 건립되었던 고려시대로부터 중건되었던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원위치의 변경 등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금석문 자료로서 송덕비의 형식과 내용, 비석의 양식 등을 고찰할 수 있는 미술사 자료이기도 하다. 관련 기록이 풍부하며 순천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유물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1980.06.02.지정)
- 명 칭 : 순천 팔마비(順天八馬碑)
- 소 유 자 : 순천시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중앙로95(영동 1번지)
- 수 량 : 1기
- 규 격 : 碑高 160cm, 碑幅 76.0cm,
臺座 가로 140cm, 세로 76.5cm, 높이 40cm
- 재 질 : 사암
- 형 식 : 비석
- 조성연대 : 1617년(광해군 9)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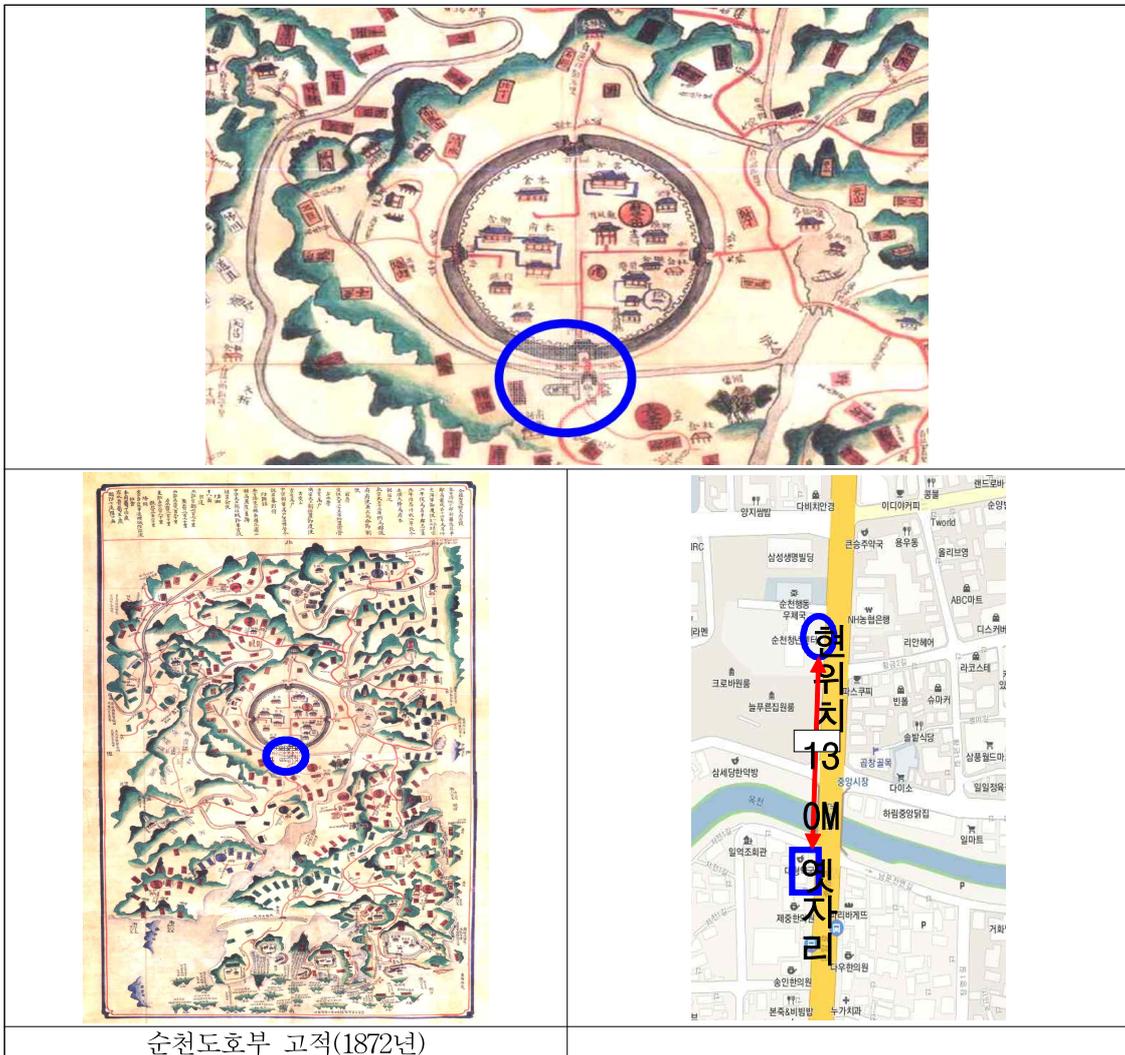
순천 팔마비는 본래 순천부읍성 남문(燕子樓) 밖 연자교(燕子橋) 남쪽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에 도심 정비 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순천시 구도심의 중앙에 해당하는 중앙로에 연결한 위치로 옮겨졌다. 비각은 1977년 8월 건립되었고, 2014년 비의 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처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 특 징

조사 대상 <순천 팔마비>는 순천 지역 백성들이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고, 받은 은혜와 교화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보이기 위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현재의 비석은 1617년(광해군 9)에 중건된 것으로서 원비석의 건립 시기는 『고려사』의 기록에 최석이 승평부사를 지내고 비서랑이 되었던 시기가 1281년(충렬왕 7) 12월이므로 상한은 1282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건립의 하한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최원우(崔元祐, 1326년 과거 급제)의 시에 “승평을 오가는 동안 절물이 바뀌나니 / 來往昇平節物移 보내고 맞이할 때 농사철을 방해한 것 못내 부끄러워라 / 送迎多愧奪民時 뒷세상에 전할 만한 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 莫言無德堪傳後 최군의 팔마비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 復起崔君八馬碑”는 내용을 통하여 적어도 1300년경에는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천도호부 고적(1872년)

최석은 본관이 경주로 최치원의 12세손이다. 그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 권 121, 열전 권제34, 양리(良吏) 부분에 상세히 전한다. 관련 내용은 『고려사절요』에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석(崔碩)은 충렬왕(忠烈王)대의 사람이다. 과거에 급제한 후 거듭 승진하여 승평부사(昇平府使)가 되었고, 임기를 마치고 들어와서는 비서랑(秘書郎)이 되었다. 승평부에서는 관례상 태수(太守)가 돌아갈 때면 반드시 말 8필을 주고, 부사(副使)에게는 7필, 법조(法曹)에게는 6필을 선물로 주면서 마음대로 고르게 하였다. 최석이 교체되어 돌아가게 되자 고을 사람들이 말을 바치며 좋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 최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은 개경까지만 타고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집에 도착한 후에 그 말을 돌려보내니, 고을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최석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고을에 수령으로 있을 때 내 말이 새끼를 낳아 데려왔는데 이는 나의 탐욕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나의 탐욕을 알고서 겉으로 사양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 망아지까지 주었다. 이로부터 말을 바치는 폐단이 끊어졌다. 고을 사람들은 송덕비를 세웠고, 팔마비(八馬碑)라고 불렀다.

(崔碩, 忠烈朝人. 登第累遷昇平府使, 秩滿入爲秘書郎. 昇平故事, 每太守替還, 必贈馬八匹, 倅七匹, 法曹六匹, 惟所擇. 及碩替還, 邑人進馬, 請擇良, 碩笑曰, “馬能到京足矣. 何擇爲?” 至家歸其馬, 邑人不受. 碩曰, “吾守汝邑, 有馬生駒帶來, 是我之貪也. 汝今不受, 豈知我之貪而爲貌辭耶?” 并其駒授之. 自是其弊遂絕. 邑人頌德立石, 號八馬碑)

한편 조선시대에도 팔마비와 관련된 많은 기록이 전한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의 문집인 『저헌집(樛軒集)』,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문집인 『사가시집(四佳詩集)』,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의 문집인 『월정선생집(月汀先生集)』,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문집인 『지봉집(芝峯集)』 등 여러 자료에서 팔마비와 관련된 사적과 그 사실을 읊은 시가 확인된다.

① 『四佳詩集』 卷之三十一 第十九 / 詩類 / 送順天府使李公之任
순천 사람들은 그곳을 소중화라 하거니와 / 昇平人說小中華

연자루 앞에는 경치가 더욱 훌륭하고말고 / 燕子樓前勝槩加
팔마비는 지금도 그곳에 여전히 있는지 원 / 八馬有碑今在否
후일의 어진 정사가 그대보다 누가 나으랴 / 他時賢政孰君多

② 『月汀先生集』 卷之二 / 詩 / 七言絕句 / 送人出知順天
임청대 곁에는 경현당이 있으니 / 臨淸臺畔景賢堂
한 세상 상심한 것 만고에 빛난다네 / 一世傷心萬古光
난리 뒤라 유림이 응당 기대할 것이니 / 亂後斯文應屬望
사당을 중건하여 제사를 올려 주시게 / 重新祠宇薦芬芳

연자루 앞에는 팔마비가 있으니 / 燕子樓前八馬碑
이끼 끼고 부스러져 깊은 상념 부치리라 / 莓苔剝落寄深思
당시에 청렴한 관리가 자취를 남겼으니 / 當年廉吏曾遺跡
천년토록 맑은 풍모 다 사라지지 않았다네 / 千古淸風不盡吹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 전라도 순천도호부 <고적(古跡)>을 비롯하여 1792년 편찬된 『순천부읍지(順天府邑誌)』의 <고적(古蹟)>, 1786년(정조 8) 조현범(趙顯範)이 편찬한 『강남악부(江南樂府)』의 「팔마인(八馬引)」 등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사적을 전하고 있어 조선시대를 거쳐 전시기동안 조선 관료의 청덕(淸德)을 상징하는 사적으로서 이해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순천 팔마비>는 현재 높다란 기단 위에 비각을 만들었는데, 사면의 기왓골이 지붕의 정상부에 모이는 사모지붕의 구조이다. 비석은 현재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상태이나 오랜 세월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적인 풍화 및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손상되고 파손된 곳이 많다. 더욱 암질이 퇴적암에 속하는 사암으로 약한 편에 속하여 최근 대기오염과 산성비 등에 의한 훼손도의 진행이 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본래의 대좌와 비신을 갖추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진다. 현재의 비석은 전면에 새겨진 ‘八馬碑’ 석 자는 높은 돌을새김기법으로 되어 원상을 잃지 않고 있으나, 배면에 기록된 ‘陰記’는 육안으로는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비석은 상면이 둥글게 처리된 비갈형(碑碣形)이다.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폭

은 약 76.0cm, 두께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액의 상부는 귀접이 형태로 하였다. 액의 크기는 높이 약 140cm, 폭은 약 63.0cm로서 그 내부에 ‘八馬碑’ 석 자를 높은 돌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자의 지름은 약 48.0cm로 상당히 크다.

碑座의 크기는 가로 140cm, 세로 76.0cm, 높이는 33.5cm이며, 碑孔은 가로 70.0cm, 세로 18.0cm의 크기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弧形)의 2단받침을 마련하였는데 높이는 각각 약 2.5cm 정도이다. 현재 전면의 일부와 측면의 일부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비좌의 상부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면에는 복련(覆蓮)을 전체적으로 둘러 조식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상당히 마모되어 그 윤곽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순천 팔마비>의 배면에는 이수광이 짓고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이 쓴 중건기가 기록되었다. 비문을 쓴 김현성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자는 여경(餘慶), 호는 남창(南窓)으로 부친은 목사 김언겸(金彦謙)이다. 1564년(명종 1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교서관 정자(敎書館正字)와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양주목사 등을 거쳐, 1617년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역임하였다. 시·서·화에 두루 능하였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에 능하였다. 글씨는 조선초에 유행하였던 우아하고 균정된 모습을 지닌 송설체(松雪體)를 따랐다. 서예 유작으로 행서(行書)로 쓴 「주자시(朱子詩)」 그리고 비문으로 「숭인전비문(崇仁殿碑文)」·「이충무공수군대첩비문(李忠武公水軍大捷碑文)」·「조헌순의비문(趙憲殉義碑文)」·「신숭겸충렬비문(申崇謙忠烈碑文)」·「정언유격묘비문(正言柳格墓碑文)」 등이 남아 있다.

중건기는 현재 육안으로는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멸이 심한 상태이나, 관련 내용은 비석을 중건한 이수광의 문집에 전해지고 있어 그 전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順天都重建八馬碑陰記

余嘗閱輿地勝覽見崔碩八馬碑事而慕之歲丙辰忝吏于茲首訪其故則碑燬於丁酉兵燹不復者二十載矣慨然謀所以復之于是邑之賢長者許鍵生員鄭之推等若于人相與鳩材治石不踰歲而告成噫崔公之爲是府四百年于今而民思其德如一日碑雖廢而口碑尚存則安用區區刻石爲哉然所以表識而風厲乎人者實在於此碑閣固不可闕也昔府使崔元祐嘗起其踏而猶詩以誇之況今廢而重建者乎繼是以往凡趨而過之者其廉士也固欣然起敬以益勵其操其貪者亦將惕然動心思改其不善然則斯碑之立不惟爲吏者之所務式其關於風紀甚大視世之所謂遺愛碑只表去思於一時不能觀威於後世者相去遠矣竊喜茲事之有成而重嘉邑人之志粗記其顛末如此云

按崔碩高麗忠烈王朝人事詳載輿地勝覽可考也崔元祐詩云來往昇平節序移送迎多愧奪民時莫言無德堪傳後復起崔君八馬碑元祐不知何代人也余次之曰從古山川幾變移廢基埋沒已多時姓名不用重鑄石好事相傳口是碑蓋碑面舊書崔碩八馬碑至是用余言只題八馬碑三字亦猶峴旨之墮淚碑遼陽之華表柱不待問其姓名而知其爲羊公無丁令威也

萬曆四五年丁巳

이수광이 지은 음기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순천도호부중건 팔마비 음기

내가 예전에 『동국여지승람』을 열람한 적이 있었는데, 최석팔마비(崔碩八馬碑)의 기록을 보고서 최석(崔碩)을 흠모하게 되었다. 병진년(광해군 8, 1616년)에 외람되어 이곳에 관리가 되어 와서 맨 먼저 그 옛 자취를 방문해보니, 비석은 정유년(선조 30, 1597년)의 병란으로 훼손되어 있었고, 복구되지 않은지 20년이 되었다.

서글픈 마음에 비석을 복구할 방법을 계획하였다. 이에 고을의 어진 어른인 허건(許鍵)과 생원 정지추(鄭之推) 등 몇몇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모으고 돌을 깎고 다듬어 해를 넘기지 않고 완성을 보게 되었다. 아! 최공이 이 부를 다스린지

400년이 되었는데도 백성들이 그의 덕을 사모함이 그 옛날처럼 하니, 비석은 비록 무너졌지만 입으로 전승된 것은 있으니 어찌 구차하게 돌에 새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드러내고 알려 사람들에게 그의 덕을 본받도록 면려(勉勵)하는 것은 실로 이 비에 있는 것이니 진실로 훼손시킬 수 없는 것이다. 옛날 부사 최원우(崔元祐)는 그 넘어진 것을 일으키면서도 시를 지어 노래하였으니, 하물며 지금 무너진 것을 중건하는 것에 있어서이겠는가. 이후로부터 이곳을 지나치는 모든 이들 중에 염치(廉恥) 있는 선비들에게는 실로 기쁜 마음으로 공경함을 일으켜 더욱 면려됨이 있을 것이고, 조급하고 탐심이 있는 이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착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석을 세운 것이 관리가 된 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됨이 매우 커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애비(有愛碑)’가 단순히 한때에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는데 그쳐 후세에까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현격할 것이다. 가만히 이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고을 사람들의 뜻을 더욱 가상히 여겨서 대략이나마 그 전말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살펴보니, 최석은 고려 충렬왕대의 사람으로 그에 관한 일은 『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실려 있어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최원우의 시는 다음과 같다.

승평에 오가는 동안 계절이 바뀌었는데 / 來往昇平節序移
 영송하느라 농번기 뺏어 몹시 부끄럽구나 / 送迎多愧奪民時
 후세에 전할 만한 덕이 없다 하지 마소 / 莫言無德堪傳後
 최군의 팔마비를 다시 일으켜 세웠시오 / 復起崔君八馬碑

최원우는 고려 말엽의 사람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한다.

예로부터 산천이 얼마나 변하였는가 / 從古山川幾變移
 터가 황폐해져 매몰된 지 오래되었네 / 廢基埋沒已多時
 성명을 거듭 돌에 새길 필요 없으니 / 姓名不用重鐫石
 호사가들이 전하여 입이 비가 되었네 / 好事相傳口是碑

대개 비의 전면에 ‘최석팔마비’라고 썼는데, 이에 이르러 내 말을 듣고 다만 ‘팔마비’ 석자만 썼으니 현산(峴山)의 타루비(墮淚碑)와 요양(遼陽)의 화표주(華表柱)가 그 성명(姓名)을 물을 필요도 없이 그 주인공이 양공(羊公;羊祜)와 정영위(丁令威)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만력(萬曆) 45년 정사년(광해군 9, 1617년)

<순천 팔마비>의 전면에 쓰여진 ‘八馬碑’ 석 자는 진사 원진해(元振海, 1594~1651)의 글씨로 이해되고 있다. 본관은 원주(原州)로서 자는 윤보(潤甫), 호는 장륙당(藏六堂)이며 부친은 구정(龜亭) 원황(元幌)이다. 1616년(광해군 8) 병진(丙辰) 증광시(增廣試)에 진사(進士) 3등 48위로 합격하였고 효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부(師傅)를 지냈다. 명필로 이름을 높여 관아(官衙)와 궁중(宮中)의 문액(門額)을 쓴 것이 많았다.

<순천 팔마비>의 ‘八馬碑’ 석 자의 표현 기법은 1565년(명종 20)에 이황(李滉, 1501~1570)이 쓴 ‘臨淸臺’라는 글씨를 새긴 <순천 임청대>(전남 유형 제77호)와 비교된다.



<순천 임청대>는 1565년 당시 승평태수인 이정(李楨)이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굉필(金宏弼)과 조위(曹偉)가 유배되어 귀양살이하던 중 옥천서원 근방의 계곡을 벗삼아 소일하면서 이곳을 ‘임청대’라 하였던 것을 기념하여 퇴계선생으로부터 ‘臨淸臺’라는 글씨를 받아 건립한 비석이다. 비문의 음기는 진사 정소(鄭沼)가 지었고, 공사는 진사 배숙(裴壽)이 맡아 진행하였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옥개석(屋蓋石)·비신(碑身)·대좌(臺座)를 갖춘 비와는 달리 비신 위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 불교유물에서 볼 수 있는 연화문(蓮華文)이 새겨져 있다. 또한 비석의 전면에 귀접이 형태의 액을 구획한 이후 그 안에 ‘臨淸臺’석 자를 큼직하게 높은 돌을새김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배면에 비석의 건립과 관련된 사실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 임청대>와 <순천 팔마비>는 우선 공간적으로 ‘순천’이라는 지역, 시간적으로 1565년과 1617년이라는 조선 중기, 비석 전면에 높은 돌을새김기법으로 표현한 비문과 배면의 건립 사실을 적은 음기 그리고 비석 대좌에 표현된 연화문의 양식 등 미술사적 특징에서 동일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더욱 비문 전면에는 동시기 문인 학자로서 높은 명성을 지녔던 원진해와 이황의 글씨를 새겨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적을 감계(鑑戒)로 삼고자 했던 조선 관료의 인식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지정사례

해남 명량대첩비(1688년 건립), 보물 제503호, 1969.06.16. 지정

여수 이통제공 수군대첩비(1615년 건립), 보물 제571호, 1973.05.04. 지정

여수 타루비(1603년 건립), 보물 제1288호, 1998.12.04. 지정

<붙임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순천 팔마비>는 순천 지역 백성들이 고려말 승평부사(昇平府使)를 지냈던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고, 받은 은혜와 교화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보이기 위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현재의 비석은 1617년(광해군 9)에 중건된 것이나, 관련 기록을 통하여 원비석의 건립 시기는 늦어도 1300년대 초기로 추정되고 있

다. <순천 팔마비>의 지정 가치로서 우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다.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초반 쓰러졌으나 다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선조 30, 1597년)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부사로 부임해 온 이수광에 의해서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에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다만 1930년대 도시의 확대 속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져 순천 옛 도심의 중앙에 해당하는 현재 위치로 이견되었다.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서적과 조선시대의 여러 문집 속에 이같은 비석의 건립과 그 변천에 관한 모든 사실이 단순하게 구전이 아닌 기록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유물의 진정한 가치가 확보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순천 팔마비>는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고, 은혜와 교화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보이기 위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이 비석은 고려 사회에서 바라보았던 ‘관리의 淸德’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역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같은 사실이 왕조가 달라지는 조선시대 내내 계승되고 있는데, 이석형의 문집인 『저헌집』, 서거정의 문집인 『사가시집』 등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팔마비와 관련된 사적과 그 사실을 읊은 시가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곧 고려와 조선의 역사적 사회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미술사적 가치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옥개석(屋蓋石)·비신(碑身)·대좌(臺座)를 갖춘 비와는 달리 비신 위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 불교유물에서 볼 수 있는 연화문(蓮華文)이 새겨져 있다. 또한 비석의 전면에 귀접이 형태의 액을 구획한 이후 그 안에 ‘八馬碑’석 자를 큼직하게 높은 돌을새김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배면에 비석의 건립과 관련된 사실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특징은 공간적으로 ‘순천’이라는 지역, 시간적으로 1565년과 1617년이라는 조선 중기에 건립되었던 비석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더욱 비문의 전면과 배면에는 동시기 문인 학자로서 명필로 명성이 높았던 원진해와 김현성의 글씨를 새겼다는 점에서 서예사적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 중기의 예술사적 면모를 살필 수 있다.

마지막 가치는 <순천 팔마비>가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니는 문화적 가치이다. 비석은 건립된 이후부터 중건 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인식 속에서 ‘팔마로’라는 거리, 지역 축제인 ‘팔마문화제’등 순천지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 유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은 특징은 유물의 보존 가치를 높여준다.

따라서 <순천 팔마비>는 보물로 승격해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정 이후 현재와 같이 자연적 훼손이 증가되는 유물에 대한 보존과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비석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보존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주 갑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 갑사 대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남 공주시 소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갑사대웅전」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21.01.21)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1.28~'21.02.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갑사대웅전(甲寺大雄殿)」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중장리 52)
 - 지정일 : 1984. 01. 1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중장리 52)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대한불교조계종 갑사)
 - 시대/연대 : 조선시대(17세기)
 - 수 량 : 1동(157.37m²)
 - 지정면적 : 293.9m²
 - 구조/형식/형태 : 5량가 / 다포계(多包系) / 맞배지붕
 - 재 질 : 목재, 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2019.12.2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12.24	대상문화재	공주 감사 대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공주 감사 대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12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신청종별 : 보물

2. 문화재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¹⁾

3.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4. 연혁 : 갑사는 최치원(崔致遠, 857~?)이 기록한 「당대천복사고사주변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904년)에 등장한 화엄십찰의 하나, 『삼국유사』(一然일연, 1206~1289)에 의상(義湘, 625~702)이 불교를 전한 화엄십찰 기록, 『갑사사적비명(岬寺事蹟碑銘)』(1659년)에 신라 진흥왕(眞興王, 540~576)이 창건했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초창기는 늦어도 통일신라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유물²⁾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유물³⁾이 잘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송유역불정책 등으로 인하여 불교는 수난기를 맞이하였으나 갑사는 사원의 경제⁴⁾가 윤택하여 사세가 확장됐다. 1583년(선조 16)에는 정문을 중수하고 1584년(선조 17)에는 「갑사동종(甲寺 銅鐘)」⁵⁾을 새로이 주조하는 등 불사가 이어졌다. 임진왜란(선조 25, 1592년)이 발생하자 갑사 승려 기허당 영규(騎虛堂 靈圭大師, ?~1592)는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국 승병 궤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와 관련된 기록이 『의승장 기허당대사기적비(義僧將 騎虛堂大師紀蹟碑)』와 『선조실록』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진영은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의 진영과 함께 「표충원(表忠院)」⁶⁾에 모셔져 있다. 갑사는 영규대사의 의병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유재란(선조 30, 1597년)때 전소된 것으로 전한다.

이후 1617년에 「갑사 소조삼세불(甲寺 塑造三世佛)」⁷⁾, 1650년에 「갑사 삼신불 괘불탱(甲寺三身佛掛佛幀)」⁸⁾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중건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659년에 이르러서는 「갑사사적비」⁹⁾를 세웠다.

한편, 절 이름은 시대에 따라 계룡갑사(鷄龍岬寺), 갑사(岬寺), 갑사사(岬寺寺), 계룡사(鷄龍寺), 갑사(甲寺) 등으로 불리어져 왔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麻

1) 충남 유형문화재 제105호

2) 「공주 갑사 철당간(公州 甲寺 鐵幢竿)」(보물 제256호), 「갑사석조보살입상(甲寺石造菩薩立像)」(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51호),

3) 「공주 갑사 승탑(公州 甲寺 僧塔)」(보물 제257호), 「갑사석조약사여래입상(甲寺石造藥師如來立像)」(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등

4)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1424) 기사 : 忠淸道 公州 鷄龍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

5) 보물 제478호

6) 1768년 건립,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52호, 갑사의 맨 뒤편 위쪽에 자리 잡고 있음.

7)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

8) 국보 제298호

9)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52호

谷寺)의 말사이다.

대웅전은 「갑사사적비」(1659년)에 창건과정과 역사 기록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초창과 중건 연대를 알 수 없다. 조익(趙翊)의 공산일기(公山日記, 갑사 기행)¹⁰⁾, 대웅전 내부에 있는 「갑사 소조삼세불(甲寺 塑造三世佛)」(1617년), 「갑사 삼신불 괘불탱(甲寺三身佛掛佛幀)」(1650년), 「공주갑사석가여래삼세불도(公州 甲寺 釋迦如來三世佛圖)」(1730년)가 있다. 그리고 『정문 중수기』(1797년)에 대웅전이 존재한 기록, 『갑사대웅전중수기』(1876년)에 ‘중수한 세월이 어느덧 150년이나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중건연대는 1700년대 초반 중수 이전 17세기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876년 중수 이후 1905년에는 「삼장탱화(三藏幀畫)」를 조성하고, 1910년에는 「신중탱화(神衆幀畫)」와 「현왕탱화(現王幀畫)」를 조성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 수리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¹¹⁾

5.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갑사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오악(五嶽) 중 서악(西嶽), 고려시대엔 묘향산(妙香山) 상악(上嶽), 지리산 하악(下嶽)과 더불어 3악(三嶽) 중 중악(中嶽)으로 일컬어지는 명산 계룡산(鷄龍山)의 서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계룡산은 주봉인 천황봉에서 쌀개봉, 삼불봉으로 이어진 능선이 흡사 닭벼슬을 한 용의 형상이라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계룡산의 풍수형국은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비룡봉익형(飛龍鳳翊形), 쌍룡농주형(雙龍弄珠形), 일룡농주형(一龍弄珠形), 산태극수태극형(山太極水太極形), 금계포란형(錦鷄抱卵形)으로 불리어진다. 계룡산은 조용한 산줄기 곳곳에 암봉, 기암절벽, 울창한 수림과 층암절벽 등 경관이 수려하다. 흔히 봄 동학사, 가을 갑사로 불릴 만큼 이 두 절을 잇는 계곡과 능선 등 산세의 아름다움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갑사계곡 아홉 명소 중 하나인 용문폭포는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영험함 때문에 기우제나 산제 등 무속행사의 장소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계룡산은 사계절 산행지로 봄에는 동학사 진입로변의 벚꽃터널, 여름에는 동학사 계곡의 신록, 가을에는 갑사와 용문폭포 주위의 단풍, 겨울에는 삼불봉과 자연성능의 설경이 장관을 이룬다. 갑사계곡은 계룡산 국립공원의 7개 계곡 중 “춘마곡 추갑사(봄에는 마곡계곡, 가을에는 갑사계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풍이 빼어난 곳이다. 5리 숲 이라고도 부르는 갑사 진입로는 특히 장관이다. 계룡산 서북쪽 기슭 해묵은 노송과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한 갑사는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이며 5개의 암자가 있다.

갑사는 계룡산의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인근에 갑사의 철당간지주와 사리탑, 동쪽의 동학사, 서남쪽의 신원사, 동남쪽의 용화사 등 고찰과 아울러 고려 말 삼은을 모신 삼은각, 매월당 김시습이 사육신의 초혼제를 지낸 숙모전, 신라 충신 박제상의 제사를

10) 『가휴선생문집(可畦先生文集)』 : 조선시대 중기에 쓴 조익의 시문집

11) 2014년 : 배면 연목 해체 및 번와 보수, 2015년 : 기단 및 계단 보수

지내는 동학사 등의 많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다.

6. 건축현황 및 특징 : 갑사의 배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1693년 계룡산 산행 기행문인 「유계룡산록」의 기록과 1966년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서쪽에 강당과 해탈문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하여 중심영역을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진해당·응향각·요사·수각·팔상전·표충원·주지실이, 남쪽에는 적묵당·삼성각·간성정·대적전·요사가 놓여있다. 대웅전과 대적전, 북서쪽 암석 위에 있는 사적비 영역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1992년, 1994년, 2007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대웅전 중정 앞의 해탈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누각형 강당으로 바꾸어 이 건했다. 이 외에도 여러 전각들이 건립되거나 이전하였는데, 2007년에 강당 북서쪽에 범종루, 팔상전 전면에 요사채, 대웅전 동남쪽에 대적선원, 북서쪽에 신보장각 등이 건립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웅전이 자리 잡은 중심영역은 중정을 두고 전방 축선상에 누각형 강당이, 좌·우측에 각각 진해당·적묵당이 위치한 산지중정식 가람배치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가람배치 유형은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일반화된 유형으로 대웅전의 중건(17세기) 때 모습이라 여겨진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다. 주칸은 정·측면 모두 정칸이 퇴칸보다 간살이 넓은데, 정면의 정칸과 협칸은 같다. 17세기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갑사 대웅전은 비슷한 시기의 다포형식 맞배지붕 건축물에서 규모가 큰 보기 드문 건축물에 속한다.¹²⁾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불단은 후열 평주선상의 뒤쪽 정칸과 양협칸에 고주를 세워 후불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 안치했다. 3단으로 구성된 불단 위에는 후불탱화¹³⁾를 배경으로 소조삼세불(약사불·석가불·아미타불)과 그 사이에 보살입상 4구가 협시하는 칠존 형식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불벽 배면에는 1650년에 조성된 삼신불 괘불탱¹⁴⁾이 괘불함에 보관되어 있다. 전열 내주를 감주하고 고주를 세워 이주 시킨 평면구성은 17~18세기의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¹⁵⁾ 불단 위의 단집은 3칸 모두 동일한 운각형으로 중앙부를 돌출시킨 3단으로 구성하였다. 각단은 하단을 연화(중앙)와 연봉(좌·우)으로 조식한 헛기둥에 헛창방과 평방을 걸구하고 풍련으로 장식하였다. 단집 내부는 용, 봉, 꽃무늬등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기단은 전저후고 지형에 따라 정면은 다듬돌바른층쌓기하고 장대석 갑석을 얹은 석축으로 높게 축조하고, 측면과 배면은 자연석 외벌대로 쌓았다. 정면 석축의 앞 양측에

12) 17세기 5×3칸 규모 불전 : 고창 선운사 대웅전(高敞 禪雲寺 大雄殿) : 1613년, 보물 제290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慶州 祇林寺 大寂光殿) : 1629년, 보물 제833호.

13) 「공주갑사석가여래삼세불도(公州 甲寺 釋迦如來三世佛圖)」, 1730년, 보물 제1651호

14) 국보 제298호

15) 17~18세기 유사 평면구성 다포 불전 :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 산청 울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등이 있음.

는 괘불대가 있고, 좌·우측단에는 넓은 장대석 계단이 있다. 괘불대¹⁶⁾와 장대석 갑석과 계단은 근년 수리 때 사용한 새 부재다.

초석은 형태와 크기가 다른 자연석 덩벙초석을 놓고, 기둥은 모두 민흘림을 둔 원주를 세웠다. 평주보다 귀기둥을 높게 한 귀솟음이 있다.

정면의 개구부는 전부 창호로 구성하고, 좌측면·우측면과 배면은 판벽을 치고 창호를 달았다. 정면 5칸은 협칸·정칸·협칸 모두에 4분합굽널띠살 들문을, 양퇴칸에는 2분합굽널띠살 들문을 달았다. 좌측면과 우측면에는 전퇴칸에 쌍여닫이굽널띠살 출입문이, 후퇴칸에 각각 외여닫이 울거미널문과 쌍여닫이띠장널문이 달려있다. 배면은 정칸과 우퇴칸에 쌍여닫이띠장널문을 설치하였다. 판벽은 갑사 대웅전 중건과 비슷한 시기의 불전¹⁷⁾에서 나타나는 벽체이기도 하다. 창호는 풍화마모 정도와 동일시기 불전의 살대의 문양과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건 이후 어느 시기에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공포는 다포형식으로 외3출목, 내3출목의 내외출목수가 같은 7포작이다. 정면과 배면의 주간포는 정칸과 양협칸에는 2구씩, 양퇴칸에는 1구씩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다. 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깎고 윗면에는 공간을 두지 않았다. 살미는 4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는 상하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 외부 살미의 1·2·3제공은 휘어 오른 양서 마구리를 양취로 사절하고 그 하부 내단은 운형으로, 4제공은 운공형으로 하였다. 4제공 위에는 운형으로 조식한 승두형 부재가 보머리에 이어져 있다. 내부 살미는 연봉으로 조각한 살미를 중첩한 운공으로 일체화했다. 일반적으로 17~18세기를 거치면서 내출목수가 증가하고, 내부살미는 운공으로 일체화 된다. 또 대들보의 보머리가 안으로 감추어지고 그 바깥쪽으로는 조각한 짧은 장식 부재를 보와 잇는다. 이런 경향에 비추어 보면 갑사 대웅전은 중건 당시인 17세기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과 유사한 내외3출목 다포계는 구례 화엄사 대웅전과 부암 개암사 대웅전¹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외부살미의 모습은 청주 안심사 대웅전의 간포와 금산 신안사 극락전¹⁹⁾과 비슷하다. 한편, 불교건축은 18세기 이후부터 꽃살무늬 창호, 살미의 연화·연봉, 용과 봉황 조각 등의 장식화와 과장된 표현을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건물은 비교적 장식성이

16) 2015년 수리 때 전면 기단 속에서 옛 괘불대 추정되는 부재 4개가 발견됐음.

17) 예천 용문사 대장전 : 17세기, 국보 제328호, 파주 보광사 대웅전 : 1622년 중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 완주 송광사 대웅전 : 1636년 중건, 보물 제1243호, 문경 김룡사 대웅전 : 1649년 중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53호.

18) 구례 화엄사 대웅전 : 1636년 중건, 보물 제299호, 부암 개암사 대웅전 : 1636년 중건, 보물 제292호

19) 청주 안심사 대웅전 : 1626년 중건, 보물 제664호, 금산 신안사 극락전 : 17세기 후반, 충남 유형문화재 제117호

약하다.

상부가구는 1고주 5량 가로 대량은 고주 위에서 배면 뒷간 보가 이어지는 합보형식이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형 동자주를, 중보 위에는 동자대공을 세웠다. 동자대공 양측을 마치 인(人)자대공처럼 경사재로 지지한 모습이 특이하다. 정면 공포는 둥근 내목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장여형 부재로 대신하고 이를 퇴량형 부재로 동자주와 계량처럼 결구하였다. 장여형 내목도리 아래는 심벽으로 지지하고 있다. 장여형 내목도리 지지구조는 17세기의 여러 불전²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천장은 중도리와 중도리, 정면 중도리와 내목도리 사이는 우물반자로 처리하고, 배면 중도리와 내목도리 사이는 널반자로 설치했다. 우물반자에는 운학문, 연화문 등 문양이 그려져 있다.

옥개부는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 풍관을 설치하고, 단청은 금단청, 금모로, 모로 단청으로 시채하였다.

7.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갑사 대웅전은 연혁과 유래를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잘 남아 있고, 중건 당시인 17세기 다포 맞배건물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단집 등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 대웅전 내에는 건물의 역사와 함께한 불상과 불화 등의 귀중한 소장 유물이 온전히 잘 보존되고 있다.

흔치 않은 큰 규모의 갑사 대웅전은 충남을 대표하는 통일신라시대 고찰의 주불전으로 17세기의 양식적 편년을 비롯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대구 광계사 원통전 : 1606년, 보물 제1850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 1611년, 보물 제662호, 익산 승림사 보광전 : 1613년, 보물 제825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 1614년, 보물 제290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 1630년, 보물 제299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 1632년, 보물 제500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 1636년, 보물 제292호, 순천 송광사 영산전 : 1640년, 보물 제303호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 1673년, 보물 제608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12.24	대상문화재	공주 감사 대응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직위(직책)	조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공주 감사 대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7 월 3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문화재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 문화재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공주 갑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계룡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다. 계룡산은 통일신라시대에 5악 중 서악(西嶽), 고려시대에는 3악중 중악(中嶽)으로 불린 영험한 산으로서, 계룡산에 자리한 갑사 역시 계룡갑사(鷄龍岬寺), 갑사(岬寺), 갑사사(岬士寺), 계룡사(鷄龍寺), 갑사(甲寺) 등의 여러 이름으로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다. 계룡산에 이웃한 공주는 조선시대에 목사가 주재하는 충청도 지역 4목의 하나로서, 천안에서 차령을 넘어 호남으로 가는 도로와 부여를 통해 서해까지 이어지는 금강이 서로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으며, 1598년에 충주에서 충청감영이 옮겨 와 더욱 번성했다. 조선후기 읍지도에는 공산성과 공주목의 읍치가 중심에 그려져 있고 우하단에 갑사가 자리잡은 모습이 전형적으로 묘사되어 갑사가 공주문화권에 속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갑사 창건의 가장 오래된 연원은 6세기 신라 진흥왕대에 창건했다는 설로서 「갑사사적비」(1659)에 기록되어 있다. 경내에 있는 ‘갑사석조보살입상’이 백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언설이다. 보다 확실한 기록은 904년에 최치원이 쓴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인데, 화엄십찰의 하나로 계룡산 갑사가 등장한다. 화엄십찰은 『삼국유사』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므로 계룡산 갑사는 적어도 9세기 이전에 창건되었음이 확실하다.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공주갑사철당간’이 남아있어서 당시에도 사세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갑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물로는 ‘공주갑사승탑’과 ‘갑사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다. 갑사는 조선시대의 역불정책 아래서도 1424년 선종사찰로 분류되어 원속전 150결을 얻고 승려 70명이 거처하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갑사의 승려 영규는 최초로 의승 수백명을 규합하여 청주성을 지켜냈다. 이는 전국에서 승병이 쫓기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갑사에서는 영규를 기리기 위해 1768년 표충원을 건립하여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과 함께 그의 진영을 모시고 있다. 이와 같은 갑사의 호국 활동은 관민의 칭송을 받았으며, 전쟁 직후 곧바로 훼손된 불전의 재건사업에 돌입하고 대규모의 사세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갑사의 모습은 사대부들의 각종 기행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룡산은 사대부들의 산행 장소로 인기가 있었고, 갑사는 규모가 크고 접근이 쉬워 계룡산을 드나드는 필수코스로 인식되었다. 갑사의 건축 모습에 대해서는 조익의 「공산일기」(1605), 오재정의 「유계룡산록」(1693), 송상기의 「유계룡산기」(1700)의 묘사가 자세하며, 우암 송시열을 비롯한 문인들의 시(詩)도 다수 전한다. 조선시대 갑사의 연혁을 상고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는 「갑사종기」(1584), 「갑사사적비」(1659), 「정문중수기」(1797), 「계룡산갑사불상개금시주질」(1866), 「갑사법당중창상량문」(1877), 「갑사대웅전중수기」(1876), 「갑사중수기」(1927)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갑사는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7세기 초에 중건이 시작되었고 17세기 중반에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수 기록이 있어서 건축물과 배치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대적인 중창을 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연혁·유래 및 특징 :

공주 갑사는 10세기 초에 이미 화엄십찰의 하나로 꼽힐 만큼 역사가 오래된 사찰로서, 고려시대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는 승탑과 여래입상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승유역불정책이 본격화되는 와중에도 사찰의 경계를 운택하게 유지했던 기록이 있다. 특히 1583년에 정문을 중수하고, 1584년에 동종을 새로 주조하는 등 임진왜란 이전까지 꽤 큰 규모의 사찰 구성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전쟁 중에 화를 입고 상당부분이 소실되어 당시의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다. 17세기 계룡산 유기의 하나인 조익의 「공산일기」 1605년 4월 5일자 기사에는 조익이 갑사에 방문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사찰의 건축물이 병화를 입은 후 중창하였으며 늙은 느티나무가 기단 앞에 있어서 시원한 그늘이 가득했다고 묘사했다. 조익이 언급한 병화는 1597년 정유재란이 유력하며, 이후 갑사의 승려 인호(印浩)·경순(敬淳)·성안(性安)·병윤(並胤) 등이 힘을 합쳐 1604년에 대웅전과 진해당을 먼저 중건했다는 서술(공주문화원, 『공주의 맥』, 1992)이 있다. 1659년의 「갑사사적비」 문장에 산승 경순(敬淳), 성안(性安), 보랑(普朗) 등이 재건 공사에 열중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17세기 동안 대웅전과 진해당을 비롯한 갑사의 여러 건축물이 정비되었다. 관세음보살 입상 복장유물에 수록된 기록을 통해 1617년에 소조삼세불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고, 삼신불 괘불탱은 화기를 통해 1650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654년에는 사정(思淨)·신희(愼徽)·경환(瓊環)·일행(一行)·정화(正華)·상균(尙均)·행준(行俊) 등의 승려가 관

찰사 강백년(姜栢年)의 도움을 얻어 사찰을 크게 중창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에 대한 기록은 1659년 9월에 여주 목사 이지천이 짓고 공주목사 이기정이 글씨를 쓴 「갑사사적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문은 관찰사 겸 순찰사 강백년과 목사 신숙의 공덕을 숭상하고, 이어서 사정과 신회 등 승려 7명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서를 마치고 있다. 또, 대웅전의 현판은 제작연대가 강희8년(1669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글자 사이에 시주자 등의 이름을 음각해 두었는데, ‘웅’자 아래에 중창에 참여한 승려 정화(正華)의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의 중창 사업은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말 갑사의 모습은 충청관찰사로 부임했던 송상기가 1700년 계룡산을 여행하고 남긴 기록인 「유계룡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사 건축에 대한 묘사로는 절의 누각이 높고 웅장했고, 동쪽에 새로 지은 불전에 매우 많은 경판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앞에 높이가 33절이나 되는 철탑이 있는데 어느 시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듬새가 요새 것은 아니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동쪽 요사채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갑사의 여러 전각을 두루 둘러보니 오밀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 별통을 열고 바라본 별집 그 이상이었다고 하여 경내에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었던 상황을 묘사했다.

이후 1738년에 임진왜란의 승병 영규대사의 영정을 휴정, 유정과 함께 모신 표충원이 건립되면서 중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1798년에는 정문을 중수하였다. 「정문중수기」에 따르면 당시 정문은 우화루와 대웅전 사이에 있었으며 1583년 중수 이후 쇠락한 모습으로 남아있던 것을 승려 원선(圓禪)이 재목을 구하여 중수하였다고 한다. 글에 다른 공사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문만 중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8세기에 대웅전과 관련한 공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대웅전에 관한 뚜렷한 기록인 「갑사대웅전중수기」(1876)에서 150년 전의 중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반의 대웅전 중수는 확실한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1875년에 고친 대웅전은 중수기에 표현하길 완연하게 옛날의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같았다고 하여 원형을 상당히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77년에 씌어진 「갑사법당중창상량문」에는 1875년으로 추정되는 올해년에 화재로 절이 불타는 것을 참혹하게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차후 두 문헌의 관계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웅전은 1927년에 김윤환의 주도로 다시 한 번 중수되었으며, 이때도 「갑사중수기」에는 예전의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료로 교체하였다고 기록돼있다. 그러므로 대웅전 건물의 형식은 17세기 초 또는 중반의 건축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17세기의 갑사 건축물의 구성은 1693년에 오재정이 지은 「유계룡산록」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남쪽으로 시내를 건너 영산전(靈山殿), 명부전(冥府殿), 대적전(大寂殿)이 위

치한 소위 금당자리(金堂位)와 요사채인 송월寮(送月寮)와 중방(中方), 관음전(觀音殿)이 자리했다. 시내 북쪽이 큰 절인데, 대웅전(大雄殿), 종각대루(鐘閣大樓), 해장전(海藏殿), 동서상실(東西上室), 수종당(水聳堂), 극락전(極樂殿), 비로전(毗盧殿), 운집寮(雲集寮)가 있었다. 사문(沙門) 안에는 이지천이 지은 사적비가 있었고, 동서남북에 각각 암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대적전 지역이 금당자리로 불렸던 것으로 미루어 고대의 금당이 이곳에 위치했으나 언젠가 북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찰의 주요 건물들 중 대웅전과 함께 재건된 진해당, 중수기에 기록된 정문과 우화루 등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건축구성이 복잡하고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에 대적전, 대웅전, 사적비는 현재까지 명칭이 유지되고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자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사 대웅전은 다포계 맞배지붕을 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17세기 사찰인 선운사 대웅전, 기림사 대적광전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팔작지붕의 정면 5칸, 측면 3칸 불전으로는 마곡사 대광보전, 쌍계사 대웅전 등이 있다. 갑사 대웅전의 주칸 크기를 영조척으로 환산해보면 정면은 8척-12척-12척-12척-8척, 측면은 8척-16척-8척으로 완정하게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면의 정칸을 강조하지 않고 동일한 배수로 계획함으로써 공포가 배열되는 방식이 간결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측면의 균등 계획은 도리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 기단은 건물에서 전면 평균 2,200mm, 배면 평균 2,100mm, 좌우 각 1,400mm씩 내밀어 구성했으며 전면에만 장대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 단의 자연석으로 구성했다. 계단은 좌우로만 두었다. 초석은 크기와 형태가 각기 다른 자연석 초석 20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을 초석에 맞게 그랭이질하여 사용하였다.

기둥은 2고주 5량가의 기본형식에 맞추어 평주 12본과 고주 4본으로 구성했다. 평주의 높이는 평균 3,438mm, 좌우측 고주의 높이는 평균 6,355mm이다. 목재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살려 민흘림으로 치목하였고 귀기둥이 다른 기둥에 비해 굵으며 약 3치 가량의 귀솟음이 확인된다. 기둥 위에는 창방을 끼우고 그 위에 평방을 올렸는데, 측면에는 단평방을 두는 형식으로 귀를 마감했다. 대량은 실내에 총 4본을 두었는데 단면의 폭과 높이를 거의 비슷한 비례로 하여 원목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했다. 대량 끝은 공포의 끝까지 뻗지 못하고 외1출목 바깥으로는 별도의 살미를 추가하여 외목도리를 받쳤다. 종량은 외벽까지 합쳐 총 6본이 설치되었고, 퇴량은 배면 주심포 상부에서 실내 고주 허리에 결구되었다. 종량 사이와 퇴량 사이에는 모두 천장을 가설하였다. 갑사 대웅전 지붕가구에서 특이한 점은 전면 공포 내3출목 위치에 설치된 화반벽과 대량 위 동자주 사이에 설치된 계량(繫梁)의 존재이다. 계량은 이 위치에 빗천장을 설치하기 위해

구조를 보강한 장치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불전 실내의 상부는 빠짐없이 모두 천장으로 마감되었다. 공포와 보 위에 올라가는 도리는 8척 등간격으로 배열되었으며 직경은 270mm 내외이다. 모두 굴도리이지만 전면 중도리만 납도리로 시공되어 있으며, 공포 위에 내목도리를 두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갑사 대웅전의 공포는 내외3출목 7포작의 구성으로서 전면과 배면에만 공포가 배치되었다. 평면 주칸이 정수배의 치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3칸에는 주칸포를 2구씩, 좌우 협칸에는 1구씩 등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사찰건축에서 주칸 폭을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공포의 간격을 맞추지 못해 첨차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 디자인 수법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원칙적이고 간결한 구성을 택했다. 전면과 후면의 공포 형식에 위계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 것 역시 기본에 충실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내외3출목으로 구성된 공포는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공포의 형식이며, 특히 전라도 지역의 사례가 가장 많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청원 안심사 대웅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에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갑사 대웅전 공포는 외부 5제공과 내부 4제공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에서 초제공부터 3제공까지는 양서형으로, 4제공과 5제공은 초엽형으로 끝을 장식했다. 단, 5제공은 보머리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살미를 끼워 마감한 것이다. 내부는 대량 아래 4제공으로 구성되었는데 초제공부터 3제공까지 살미의 끝부분에 연봉을 조각해서 외부의 양서형 살미와 균형을 맞추었다. 갑사 대웅전 공포의 제공 디자인의 특징은 제공들이 서로 밀착하여 하나의 조형을 이루도록 형태를 다듬고 이에 맞추어 초각과 단청이 베풀어진 것이다. 내외부 모두 일체형 판재처럼 인식되는 제공의 결합은 주변의 마곡사 대웅보전 공포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17세기 사찰건축 양식의 중요한 변화를 예증하고 있다.

지붕은 맞배로 겹처마 형식을 취했다. 장연 위로 부연을 가설함으로써 퇴칸의 깊이보다 1척 정도 더 큰 2,700mm 내외의 처마공간을 형성했다. 맞배집이면서도 약 130mm 내외로 안허리곡을 주었다. 서까래는 장연과 단연의 구분없이 지름 180~210mm의 원형재료를 사용했고, 서까래의 휘어짐을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1척 정도의 간격으로 배열했다. 창호는 전면에 세살문을 설치했는데 중앙3칸에는 4짝 분합문을 설치했고 좌우협칸에는 2짝 분합문을 설치하여 법회가 있을 때 전체를 접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분합문은 평상시에 드나드는 좌우측면 전면 퇴칸에도 설치되었으며, 후면 퇴칸과 배면에는 판문을 설치해서 수장품이 드나드는데 활용했다. 세살문으로 계획된 정면의 창호는 맞배집의 반듯한 조형과 어우러져 정돈되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에는 서까래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이 없이 모두 반자를 설치했다. 퇴칸에는 빗반자를 설치했

고 중도리와 종량 사이는 우물천장을 설치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다. 마룻바닥에서 우물천장까지의 높이는 6,100mm이다. 실내고주에 붙여 설치된 불단은 단청을 하지 않았지만 쇠시리와 쌍사 변탕치기 기법이 발견되고 조각이 치밀하여 격식을 갖추었다. 단청은 천장구조와는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잘 갖추어진 형식이라 보기는 힘들다. 단청은 정면과 실내는 금단청으로, 측면과 배면은 모로단청으로 구성되었다.

5.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갑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직후에 중건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불전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17세기 기록에 의하면 금당자리라고 불리는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절이 창건될 때의 법당의 위치는 아니지만,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서 이후 그 형식을 대체로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내부의 ‘갑사소조삼세불’이 1617년에 조성되었고, ‘갑사삼신괘불탱’은 1650년에 그려졌으며, 1659년에 「갑사사적비」가 세워지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갑사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기존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1604년에 처음 지어지고 1650년대 대규모의 사역정비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수차례 중수 사업이 있었지만 중수기에 옛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재를 교체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재 대웅전의 기본적인 형식은 17세기 전반기 또는 중반기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5칸, 측면3칸의 건축규모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8척, 12척 등 간단한 비례로 구성된 주칸 계획은 목구조를 짜올리고 공포를 배치하는데 유리한 관습적인 설계전통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맞배지붕에서 정면과 배면 공포의 형식이 동일하고 등간격의 배치를 하고 있어서 아직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이 유행하기 이전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일한 출목수를 갖는 공포의 제공이 내외 모두에서 일체화되어 하나의 큰 조형으로 이해되는 기법은 17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건축의 장식적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목구조에서 휘어진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미학을 탐구하는 태도 역시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크게 확장된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갑사 대웅전은 갑사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중요하다. 삼국시대 이래 화엄십찰의 하나로서 명망을 이어 온 갑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조직한 영규대사

의 업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으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계룡산 여행의 코스로 각광받았다. 갑사 대웅전에 안치된 갑사소조삼세불과 복장유물, 각종 탕화와 불화, 현판과 주련은 조선후기 불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며, 경내에 강당, 대적전, 팔상전, 삼성각, 표충원, 진해당, 적묵당 등 대형 사찰건축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갑사 대웅전은 이들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대문과 강당의 재건과 이전을 포함한 복잡한 배치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건물로서의 위치를 지켜왔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갑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중수기와 상량문의 분석, 건축배치의 변화과정에 대한 심화연구를 통해 유물에 관한 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12.24	대상문화재	공주 감사 대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공주 감사 대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1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가. 역사적 가치

공주 갑사의 창건 시기는 통일신라시대 이전으로 추정되는 고찰로서 정확한 창건년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갑사는 선종사찰로서 왕실의 비호를 받아 발전하였는데, 임진왜란때에 영규대사가 의승병장으로 활동하여 이후 의승병이 일어나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으며 호국사찰로서 「표충원」이 건립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유재란(1597년, 선조 30) 때 갑사는 전소되었다가 이후 중건된 것으로 전한다.

현재 대웅전 역시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후 현재의 위치에 중건된 것이다. 당시 전란으로 사찰 가람이 전소되면서 이전의 기록이 상당수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사찰 중건이 마무리되는 1659년에 이르러서야 「갑사사적비」를 세워 갑사의 창건과정과 역사를 기록했는데 기존 사찰의 가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웅전의 초창 및 중건에 관한 기록 역시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주 갑사 대웅전은 사찰의 주 불전으로 창건 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유재란 때 사찰이 전소되면서 중건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대웅전은 1876년과 1927년에 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대웅전 경내에 보관하고 있는 갑사소조삼세불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에서 ‘萬歷四十五年丁巳十月日 鷄龍山 岬寺 佛像畢造’이란 묵서 발원문이 발견되어 1617년(만력 45)에 조성된 것이 확인된다. 갑사삼신불괘불탱은 1650년 그려져서 1771년 보수되고 1976년 수리되었다. 석가여래삼세불도는 의겸이 제작한 불화로 삼세불도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에서 1730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삼장보살도는 1905년(광무 9)에 그려졌다. 또한 대웅전 현판 좌측 상단에는 1669년(康熙8年 己酉 6月日書)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건축적 가치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측면 후열에 내진주를 둔 정치법(定置法)의 기둥배열방식이다. 내진주를 경계로 전면은 예불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배면은 괘불함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17세기경에 많이 사

용되던 기둥배치 수법이다.

대웅전의 기단은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래는 장대석과 자연석이 혼용된 기단쌓기한 것을 2015년 보수공사 때 현재의 장대석 기단으로 새로 축조하였다.

대웅전의 창호는 전면 퇴칸은 2짝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어칸과 협칸은 4짝 분합문을 설치하였는데, 대웅전 공포의 격식에 비해 소략한 굽널세살문²¹⁾이다. 좌·우측 전열칸은 2짝 분합문을 설치하였다. 측면 후열과 배면의 것은 판문을 두었는데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괘불을 옮기기 위하여 측면 후열의 문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후불벽이 있는 불전에서는 배면의 창호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대웅전 건물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이 역시 중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의 공포는 다포식이며 출목 수는 내·외 3출목 7포작으로 내외 출목수가 같은데 조선후기로 가면 내외 출목수가 다른 구성수법이 많은데 반해 내외 출목수가 동일한 모습은 17세기 이전의 공포에서 많이 나타난다.

외부는 오제공으로, 초제공부터 삼제공까지는 양서형으로, 사제공과 오제공은 초엽형으로 마무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신안사 극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제공은 사제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살미의 끝부분에 연봉조각이 되어 있어 조선 중·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첨차는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배면 퇴량의 단면형은 네 귀퉁이만 약간 궁글린 형태로 하였는데, 외부의 노출된 보머리 형태도 동일하게 하고 단부를 직절(直切)시킨 모습인데 일반적인 모습²²⁾은 아니어서 중수시에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부재 치목수법을 보면 창방의 형태에서 기둥과의 접합부를 경미한 궁글림을 한 형태로, 이는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내부의 천장은 우물천장을 하였는데 각 칸 모두 동일한 형태로 구분을 두지 않았다.

21) 「갑사중수기」(1927)에 “...자금불상(紫金佛像) 3좌가 대웅전에 있는데 세월이 흘러 변하고 비바람이 몰아쳐기왓가 새고 담장이 무너지고 기둥이 부러지고 문설주가 썩어 삼한(三韓)의 고불(古佛)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정면의 창호가 개체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2) 1600년대 보머리 치목수법은 단면을 마름로형태로 치목하거나 하부는 모서리를 둥글게 굴리고 상부는 ‘ㄱ’자 형태로 치목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다.

불상위에는 단집으로 장엄을 베풀었다.

다. 학술적 가치

공주 갑사 대웅전은 조선 중기에 중건된 사찰의 주 불전 건축이다. 대웅전에 관한 기록은 「정문중수기(正門重修記, 1797)」, 「갑사대웅전중수기(岬寺大雄殿重修記, 1876)」, 「갑사중수기(甲寺重修記, 1927)」, 「갑사중수기(甲寺重修記, 1927)」, 『가휴선생문집』의 「갑사기행」(1605)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상기의 기록에는 대웅전의 중건 및 중수 기록이 잘 남아있다.

또한 갑사 대웅전 내에 유물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1669년(강희 8)에 제작된 현판이 외부에 걸려 있으며 내부에는 1617년에 제작된 갑사소조삼세불(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65호)이 불단에 안치되어 있고, 불벽에는 1730년에 조성한 석가여래삼세불도(보물 제 1651호)가, 불벽 배면에는 1650년에 조성된 갑사삼신불괘불탱(국보 제 298호)이 괘불함에 보관되어 있는 등 다수의 유물이 중건 이후 대웅전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시대 중기의 양식적 편년을 비롯한 사찰건축의 소장유물의 학술적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의견

현존하는 기록과 유물을 종합해 볼 때,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당시 소실된 후 중건되었고, 이후 수차례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경내에 보관된 유물과 대웅전 건축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7세기에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공주 갑사는 주변의 전각들이 이건 등의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웅전은 중건 당시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당시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불전이다.

건축적인 특징을 보면, 평면구성에서의 내진주가 정치법으로 구성된 점, 배면 창호의 존재나 창방과 퇴량의 치목수법, 공포의 구성수법 등에서 17세기의 수법이 잘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모습에서 뛰어난 수작(秀作)으로 볼 수는 없으나 갑사 대웅전은 충남을 대표하는 통일신라시대 고찰의 주불전이라는 점과 현존하는 17세기의 건물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의성 대곡사 범종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의성군 소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대곡사범종각」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21.01.21)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1.28~'21.02.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대곡사범종각(大谷寺梵鐘閣)」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길 80(봉정리 894번지)
 - 지정일 : 1982. 08. 0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樓)
 - 소유자(관리자) : 대곡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길 80(봉정리 894번지)
 - 조성연대 : 17세기 전반
 - 지정면적 : 184.8㎡(보호구역 4,096㎡)
 - 양 식 : 목구조, 오량가,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16.10.17. / 문화재위원 ○○○, 전)문화재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10.17	대상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의성 대곡사 범종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6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문화재종류 : 보물

2. 문화재명칭 :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樓)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대곡사는 비봉산 산자락이 양측으로 길게 뻗어 내리면서 생긴 큰(大) 골짜기(谷) 맨 위쪽 산중턱 아래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방으로는 멀리 일월산맥이 뻗어 내린 독점산이 바라보이고 이 두 산 사이에는 남북으로 긴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대곡사의 형국은 비봉산을 동쪽에서 바라보면 봉이 날개를 펼치고 앉아 있는 모습이며, 남쪽에서 보면 봉이 날개 짓을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서쪽에서 보면 장군이 투구를 쓰고 서있는 모양새이고, 북쪽에서 건너다보면 옥녀봉을 바라다보는 옹골찬 장군 기상을 읽게 한다.

대곡사 위쪽으로 약1Km 정도 올라가면 부속암자인 적조암이 있는데, 원래 한창 번성한 때는 적조암 이외 8개소의 속암(구암·염불암·회동암·적멸암·원적암·보덕암·양진암·봉서암)을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대곡사는 의성군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로 이 지역의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4. 연혁·유래 및 특징 : 대곡사²³⁾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지공(指空)과 나옹(懶翁) 등이 창건하였다. 창건 시기는 1960년 절 앞 텃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후기 조성 추정 금동불상과 고려 초기의 다층석탑²⁴⁾ 그리고 이규보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로 미루어 보아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1605년(선조 38) 탄우(坦祐)가 중창하였다. 이때 설선당·우화당·백수당·취운당과 두월료·담월료·남월료·원통료를 짓고, 1644~83년에는 서상실·향로전·53불전·시왕전·범종루·불이문을 창건했다. 이외에도 성행당·극락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범종루²⁵⁾는 17세기 중후반에 지은 후 1990년 보수 때까지의 수리 기록이 없으며, 2000년(대량 이상 해체 보수)과 2009년(바닥 보수)에 수리가 이루어졌다.

현재 대곡사에는 대웅전²⁶⁾·명부전²⁷⁾·나한전(1990년 신축)·범종루·종각(2008년 신축)·산신각(1990년 신축)·다층석탑·일주문(1990년 신축)·요사·종무소 등이 있다. 맨 앞쪽에 자리 잡은 일주문을 지나서 개울을 건너 조금 오르

23) 창건 당시 ‘대곡사’이던 절 명칭을 1761년 ‘대곡사’로 개칭하였다.

24)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5호(2001년 지정)

25)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1호(1982년 지정)

26) 보물 제1831호(2014년 지정)

27)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39호(2003년 지정)

면 범종루가 놓여 있고 그 뒤편 한단 높은 곳에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싼 건물들이 중심영역을 이루고 있다. 중심영역은 대웅전이 중정과 마주하며 동향으로 앉아 마당에 놓인 다층석탑과 그 앞의 범종루와 일축선을 이루고, 중정 좌·우측에는 각각 요사채와 명부전이 대향하고 있다. 이런 산지중정식 가람배치는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일반화된 유형으로 범종루의 창건(17세기 중후반) 때 모습이라 여겨진다. 대웅전 좌측에는 나한전, 나한전 좌측 편 앞으로는 요사채와 종무소, 대웅전 뒤편 우측에는 산신각, 범종루 좌측에는 종각이 자리 잡고 있다.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중층건물이다. 중층 누각 건물 평면 규모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면칸×측면칸이 17세기 후반 이전²⁸⁾ 3×3에서 17세기 후반 이후²⁹⁾ 5·7×3·4로 확장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종루의 현재 평면 규모는 원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은 정면과 양측면 모두 정칸을 양협칸보다 넓게 잡았다. 누하부는 개방되어 있고 누상부는 통칸 우물마루를 깔고 그 밖으로는 계자각 헌함을 둘렀다. 정칸 우물마루 하부의 청방에는 특별히 연봉초각 하여 돋보이게 했는데 혼치 않은 예로 세심한 공력을 읽게 한다. 누 위로 오르는 계단이 우측 정칸에 나있다. 아래에 돌계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엄지기둥과 보주 장식을 한 나무계단이 보기 드물게 화려하다.

기단은 자연석을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1~2단으로 쌓고 모르타르 마감하였는데, 정면과 좌측면의 빗쌓기 뉘어쌓기 등은 전통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후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면 기단 가운데에 돌계단을 설치하였다. 막돌 초석 위에 누 상·하주를 분리하여 모두 원주를 세웠는데, 누 하주 일부는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도랑주이다.

공포는 다포계를 주로 한 절충식 다포형식으로 외2출목, 내3출목이다. 네 면 모두 주심포와 양 협칸에 간포를 두고 정칸 주간에는 간포를 두지 않고 화반을 두었다. 절충식 공포는 대개 내출목 없이 화반을 두는 경우³⁰⁾가 많음에 비추어

28) 태안 홍주사 만세루(1527년, 충남 유형문화재 제133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1605년, 보물 제662호) 등

29) 영광 불갑사 만세루(1677년, 전남 문화재자료 제166호), 안동 봉정사 만세루(1680년, 경북 유형문화재 제325호), 예천 용문사 자운루(1681년, 경북 유형문화재 제476호), 하동 쌍계사 팔영루(1695년, 경남 문화재자료 제74호), 대구 파계사 진동루(1715년, 대구 문화재자료 제10호), 남해 용문사 봉서루(1720년, 경남 문화재자료 제394호), 사천 다솔사 대양루(1748년, 경남 유형문화재 제83호) 등

30) 밀양 영남루(1884년 재건, 보물 제147호), 전주 풍남문(1768년 건립, 보물 제308호), 경희궁 승정전

보면 극히 드문 예³¹⁾에 속한다. 주심 및 주간포의 살미는 전체적으로 외부는 연화쇠서형 제공이고, 내부는 초각운궁형이다. 귀포는 귀한대와 좌우대의 외부는 연화쇠형과 쇠서형을 혼합하고, 내부는 운궁형으로 하였다. 살미는 대체로 17~18세기를 거치면서 교두형-쇠서형-초각쇠서형-연화쇠서형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바 이 건물도 당시의 경향과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첨차의 상부는 직절형, 하부는 교두형으로 조선 중기 다포계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범종루 네 면 정칸의 첨차 중 화반쪽의 주심첨차만 유별나게 고부조 초각으로 하여 화반과 함께 정칸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첨차를 초각한 예는 호남과 서해안 지역³²⁾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바 이 지역에서는 귀한 모습이 다. 화반은 삼소로 화반으로 연화를 고부조로 조식하였는데, 정·배면이 좌·우 측면보다 크고 화려하게 하여 그 위상을 높였다. 배면 정칸 화반 상부 출목도리 장여 아래에 화반 폭보다 조금 긴 초각장식재를 달아 강조한 모양새가 눈길을 끈다. 이는 독특한 예로 대응전 쪽을 중요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 초각한 창방 뿔목도 의장 효과를 더해준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에 동자주익공을 끼운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중도리를 지지하도록 하였다. 대량은 특이하게 상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보는 3제공 위에 놓고 출목도리를 받게 하고, 위의 보는 주심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중도리 장여 사이는 우물반자를, 내부 3출목 맨 위의 뜬장여와 중도리 장여 사이에는 빗반자를 설치하였다. 빗반자 하부는 초각한 돌림대로 장식되어 있다. 이 같은 천장은 사찰 중정 앞쪽 누각은 천장이 거의 대부분 연등천장인 것을 두고 볼 때 아주 특이한 예다. 천장의 부재 풍화마모 정도, 단청 흔적이 없고 종보의 옛 단청이 우물반자 안쪽까지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보아 후설 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³⁾ 원래 모습이라면 다른 사찰 누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한 예로 희소가치가 크다 하겠다.

옥개부는 겹처마에 총량 없이 합각보로 팔작지붕을 얹고 추녀 마구리에는 풍

(17세기 초반, 서울 유형문화재 제20호)

31) 서산 개심사 대응전(1484년 중창, 보물 제143호, 화반은 없음), 보은 범주사 원통보전(1624년 중건, 보물 제916호)

32) 익산 승림사 보광전(1682년 중건, 보물 제825호), 부안 개암사 대응전(1636년 중건, 보물 제292호), 강화 정수사 범당(1423년 중창, 보물 제161호) 등

33)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년 대량 위 해체보수 당시의 설계도면을 살펴보고 공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참여자를 수소문해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음. 향후 지붕 수리 때 세밀한 확인이 필요함.

경을 달아 놓았다. 팔작지붕은 범종루 건립 시기 때 지은 누각은 대부분 맞배지붕이 많은데 비해 드문 예로 이는 층량과 외기가 완전히 정착되는 18세기 이전의 사례로 여겨진다.

한편 정면 처마 밑 출목도리에는 ‘寺谷大’, 그 뒤편 내부에는 ‘樓鐘梵’ 현판이 달려 있다.

단청은 현재 공포, 대량, 화반 등 일부 부재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들도 모두 퇴색하여 그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는 상태다.

5.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대곡사 범종루는 17세기 중후반에 건립한 누각으로 평면 규모, 드문 절충식 다포의 전형과 내출목·초각형 첨차의 특이점, 상부가구의 이중보식, 정칸의 특별한 조식 기법 등은 건립 당시의 시기적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의성군을 대표하는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인 대곡사 대웅전 중창(1687년) 바로 직전에 건립한 범종루는 17세기 중후반 양식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누각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하였으면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10.17	대상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의성 대곡사 범종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6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연혁 ;

17세기 중반 태허(太虛) 경일(敬一)이 작성한 ‘대곡사창건전후사적기(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에 의하면 고려말 공민왕 당시 왕사인 지공(指空)대사가 창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만력(萬曆) 연간에 임진란으로 사찰이 모두 화를 입었고, 그 후 을사년(1605년)에 시작된 불사(불사)는 4堂, 4寮, 53佛殿, 시왕전 등을 건립하고 범종루는 불이문, 향로전과 더불어 갑신년(1644년)부터 계해년(1683)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이 작성한 ‘예천군태행산대곡사중창기(醴泉郡太行山大谷寺重創記)’ 역시 사적기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곡사의 사명(寺名)에 관한 언급은 주변지세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내용 중 ‘17일입대곡사(17日入大谷寺)’ 시운이 남아있어 이규보(1168~1241)가 생전에 대곡사를 다녀간 시기와 사적기의 창건기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예천군태행산대곡사중창기’에 의하면 신라때 건립(一寺之初創 則在新羅朝云 一)되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에 따라 창건에 대한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초창은 신라이며 고려 때 창건에 가까운 중창이 이루어지고 임란 후 대규모의 불사가 이루어지고 범종루 역시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명 역시도 기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세기경 이규보의 시체에 ‘대곡사’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 대곡사로 명명되었고 17세기의 기록인 사적기에도 대곡사로 부르고 있으나 18세기 기록에는 태행산 대곡사(大國寺)로 사명이 개칭됨을 살필 수 있다. 그러다가 1761년 적조암(寂照菴) 개금중수기(改金重修記)부터는 비봉산 대곡사(大谷寺)로 기록하고 있어 두 개의 사명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배치 ;

대곡사의 주변입지는 ‘대곡사창건전후사적기(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에 중국의 태행산(太行山)과 유사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규모도 양주 회암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국의 총림이 될 만하다고 기술하고 있어 임란 이전까지의 사세는 대단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임란 이후의 중창에서도 만만치 않은 규모로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의 사역은 상당히 축소된 규모이다.

대웅전과 범종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대웅전 전면에 명부전, 요사채가 자리하는 口字形配置, 즉 산지중정식 가람배치라 할 수 있다. 사찰의 축은 남동향을 하고 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는 대지에 자리하여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고 건물을 배치하면서 단에 따른 건물의 위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웅전 우측에 나한전과 요사채, 공양간 등 스님들의 생활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사적기에 기록된 많은 당우 중 현재 대웅전, 범종루, 명부전 정도만 당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뿐 기타 건물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대웅전 전면에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13層靑石塔(경북지방문화재자료 제405호)과 부도, 석등 잔해 등이 남아있어 사찰의 내력을 보여주고 있다.

3. 건축내용 ;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층 누각건축물이다. 하부는 벽체가 없는 개방된 공간을 이루고 상부는 우물마루에 사면을 개방하면서 귀틀을 내밀고 계자난간을 돌렸다. 이 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우측편에 설치되어있으나 과거에는 배면 어칸에 계단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현재 배면쪽 어칸 청방(귀틀장여)에 디딤판을 설치하기 위한 홈이 남아있다. 하층 기둥은 자연곡선이 잘 살아있는 도량주로 치목되었고 상부는 민흘림을 둔 원주를 세웠다. 柱經은 상부는 $\varnothing 450\text{mm}$ 정도이고 하부는 $\varnothing 620\text{mm}$ 정도이다.

주간폭을 살펴보면 정면이 7.9m이고 측면이 7.2m로 정면이 측면보다 0.7m 정도 작다. 이는 정면 어칸의 폭보다 측면 어칸의 폭을 0.7m 줄인 것에 기인하며 양 협칸은 2.2m로 동일하게 잡았다.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으로 간잡이법 매우 독특하다.

이는 지붕이 팔작지붕인 관계로 추녀를 설치하면 추녀의 뒷뿌리가 외기도리에 결구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된다. 정면과 측면의 협칸 간살이 동일하여 외기를 형성할 필요가 없으며 팔작지붕 측면 주상에서 대량과는 충량으로 결구되나 여기서는 충량이 생략되었고 내목도리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협칸의 폭이 정, 측면 동일하여 추녀가 충량위치에 걸쳐져 충량을 생략하고 종량받침 동자주만 외측으로 보강한 것으로 추론된다. 내목도리 위치에는 도리를 생략한 반면 내3출목 첨차위로 뜯장여와 유사한 각재를 올려 빗반자를 받게 하고 종량과 빗반자에 걸쳐 어칸 중앙부분에만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추녀를 고정시키

기 위한 상부구조가 매우 궁급하나 반자로 인해 상부구조를 볼 수 없어 매우 아쉽다. 대량은 일반적으로 단일부재를 사용하는데 반해 여기서는 2단으로 구성하여 상부재는 주심도리를, 하부재는 출목도리를 받게 하였다.

범종루의 공포는 주심포 각면 2구씩 8구, 주간포 각면 2구씩 8구, 귀공포 4구 도합 20구의 공포로 짜였으며 구성은 외2출목, 내3출목의 다포양식이나 구성방법이 상부구조만큼이나 독특하다. 전면과 측면 어간에는 주간포 대신 화반으로 대치하여 다포와 익공양식의 절충형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포구성은 상부구조를 견디기 위한 의도적 구성으로 추측된다. 주간 폭이 좁은 협간에는 주간포를 설치한 반면 주간 폭이 넓은 어간에는 주간포 대신 화반으로 대치하였다.

공포는 외2출목, 내3출목으로 짜였으나 귀한대는 주간포와는 달리 외3출목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3출목 위로 귀한대 공포 위에만 얹혀진 외목도리에 단장여로 왕찌를 짜 출목수를 더하였다. 이는 양협간의 폭이 같아 추녀 뒷뿌리가 내민길이보다 짧게 되므로 추녀를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측된다. 어칸 양쪽 기둥위에 놓인 주심포는 정, 배면과 양측면의 구성이 다소 상이하다. 정, 배면 주심포의 주심소첨차인 경우 어칸 중앙에 설치된 화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칸 내측으로 첨차의 길이를 키우고 草刻을 하고 협간쪽 첨차는 교두형으로 처리하여 주간포와 모양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제2출목 소첨차 역시 어칸 내측으로 길이를 키우면서 첨차하부에 線刻을 하여 어칸의 화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외목도리 장여와 하부에 덧목을 붙인 후 雲刻으로 초각하여 외2출목첨차와 연결성을 취하도록 의도하였으며 받침장여에도 운각을 하여 어칸의 장식성을 매우 높였다. 그러나 양측면 어칸은 정, 배면 어칸과는 달리 주심소첨차만 어칸쪽으로 길게 짜고 선각하여 정면과 동일할 뿐 외2출목 소첨차는 좌우 동일하게 치목하였다. 살미의 모양은 초제공, 이제공은 살미가 짧으나 단부 힘차게 위로 솟구친 양서형으로 처리하고 상부에 연화를 엮었다. 그러나 내부는 모두 초각형으로 선각만 하였다. 주간포인 경우 2단으로 처리한 대량이 외부로 나오면서 상부 대량재는 양두를 삼분변작하고 하부의 대량재는 3제공인양 단부를 양서형으로 처리하면서 하부에 연봉을 두었다.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대곡사창건전후사적기(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 등 기록에 의하면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17세기 중반 건립년대가 확실하며 당시의 대곡사 불사 내용이 소상히 기록

보존되고 있어 대곡사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건축적 측면에서 일반적 상례에서 벗어난 출목수를 더한 귀한대 공포 구성방식과 어간에 주간포 대신 화반을 설치하여 다포와 익공양식의 절충적 수법을 지니고 있으며, 첨차와 살미의 조각수법, 대량의 2단 설치방법, 상부구조결구법에서 건축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 특성은 17세기 목조건축에서 그 예가 흔치 않아 학술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생각되어 보물로 지정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10.17	대상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공학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의성 대곡사 범종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6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의성 대곡사

- 1368년(고려 공민왕 17) 인도 승려 지공(指空)과 혜근(惠勤)이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대국사(大國寺)라 하였는데, 이는 지공이 원과 고려 두 나라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불에 탄 것을 1605년(선조 38) 탄우(坦祐)가 중창하면서 대웅전과 범종루, 요사채 등을 새로 지었다.
- 1687년(숙종 13) 태전(太顛)이 중건하면서 절 이름을 현재의 대곡사로 바꾸었다. 주요 건물로는 대웅전과 명부전, 범종루, 산신각·요사채 등이 있다.

2. 범종루

- 17세기에 창건되었으며 2층 누마루식 건축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5량가 팔작건물로 다포계 양식이다. 정면의 어칸(3,500mm)을 크게 하고 협칸(2,200mm)을 작게 해서 비례를 조정하였다. 측면 역시 어칸(2,800mm)이 크고 협칸(2,200mm)은 좁다.
- 기둥은 민흘림과 도량주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하주로 도량주 8본이 사용되었고 민흘림기둥이 4본이며 누상주는 12본 전부 민흘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기둥목재 자체의 흐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 창방은 기둥머리에 좌우로 결구되었는데 누하주 상부의 창방은 누하주의 사개에 장부맞춤으로 누마루 귀틀과 연결하고 누상주 창방은 누상주의 사개와 장부맞춤하여 상부의 평방과 함께 포를 지지하고 있다. 단면은 폭보다 춤이 큰 장방형이 사용되었다.
- 평방의 상부 모서리에는 삼각형 모양의 이방이 설치되어 공포를 지지하고 있다.
- 대들보는 동일한 크기의 부재가 2단으로 걸쳐 있다. 상부 보는 주심도리를 받치고 하부 보는 출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 도리는 출목도리,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되었다.
- 구조는 대들보위에 보아지를 얹어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종보 위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장여는 받침장여로 소첨차위에 얹어져 도리를 받치고 있다. 장여와 화반 사이에 빗반자의 아래 쪽 장여와 직각방향으로 용두형의 초공을 사용하였다.

- 공포는 외2출목 5포작, 내3출목 7포작으로 구성하였다. 주심포와 주간포로 구성되었다. 정면, 측면 어간에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러한 절충식 다포는 내부에 출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측면에는 다포양식의 출목을 사용하여 절충식으로 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절충식 다포가 1출목이나 출목을 하고 내부에 출목이 없는 양식인데 반하여 대곡사 종루는 구조상으로 내외출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측면 주간포는 전형적인 다포계양식의 수법이 있어 다포, 주심포, 익공의 양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살미는 외부는 연화쇠서형, 내부는 초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60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사용되던 양식으로 종루건물이 17세기에 건축되었다는 내용과 조선 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기단은 정면은 2단, 측면은 1단인데 빗쌓기로 축조하였다.
- 단청은 현재 이루어져 있으나 이전의 문양을 보존하고 있다. 색상과 문양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보존 상태는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도 양호한 편이다. 단지 누 하부에 보관하고 있는 이전의 보수과정에서 나온 목부재 등을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보존하였으면 한다.

3. 종합 의견

- 의성 대곡사의 창건은 고려 중기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범종루는 임진왜란 이후인 1644년~1683년에 건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들보는 단일 부재가 아닌 두 부재를 2단으로 걸쳐 상부 보는 주심도리를 지지하고 하부 보부재는 보받침을 지지하고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 첨차와 살미의 형태, 창방 등에서 조선 중, 후기의 건축적 특성을 볼 수 있는 건물이다. 특히 정면과 측면의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으로 대체한 절충식은 이 지역의 다른 사찰 건물과 다른 독특한 양식이다.
-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내용과 건축적 내용을 종합하였을 국가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단지 사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정리하면서 가람의 면모를 유지하였으면 한다.

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의 명칭이 ‘영천 은해사 거조암’에서 ‘거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화재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을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지정명칭 변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21.01.21)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2.02~’21.03.0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
 -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을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명칭 변경

라. 검토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의견서

□ 자문개요

- 지정별 :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 자문내용 :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 명칭 변경

□ 검토의견

거조암(居祖菴)은 통일신라 효성왕대 또는 경덕왕대 왕명으로 지었다는 창건설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발굴조사³⁴⁾ 때 드러난 통일신라 추정 건물지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 말에 창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조암(居祖菴)’은 1912년 은혜사(銀海寺)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이름으로 원래 명칭은 ‘거조사(居祖寺)’였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문헌 기록을 비롯한 실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精選 知訥』³⁵⁾: 去戊申年(1188)早春, 契內材公禪伯, 得住公山居祖寺, 不忘前願...
- * 『東文選』³⁶⁾: 제117권, 曹溪山 修禪社 佛日普炤國師 碑銘에 ‘居祖寺’ 명칭 사용
- * 『新增東國輿地勝覽』³⁷⁾: 제22권, 慶尙道 永川郡편에 ‘居祖寺’ 명칭 사용
- * 『靑莊館全書』³⁸⁾: 「양엽기(盎葉記)」 2, 海印寺의 藏經에 ‘居祖寺’ 명칭 사용
- * 『五百聖衆請文』³⁹⁾: 居祖寺 古墟에 有一法殿하야 獨歸於陌上하니 有五百聖相하야...
- * 『영남읍지』⁴⁰⁾: ‘居祖寺’ 명칭 사용 및 지도 표기
- * 『영천군읍지』⁴¹⁾: ‘居祖寺’ 명칭 사용 및 지도 표기
- * 『朝鮮佛教通史』⁴²⁾: 慶尙北道永川郡八公山銀海寺 「寺法」 銀海寺本末寺法 大正元年

34)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영천 은혜사 거조암』 학술조사보고 제82책, 동양출판사, 2007.

3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 02, 2009.

36) 1478년(성종 9)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徐居正)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

37) 조선 중기(1530) 목판본이며 55권 25책으로 구성된 조선 중기의 관찬지리지(官撰地理書).

38)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저술 총서.

39) 한국의 대표적인 나한 의식문으로, 영파 성규(影波 聖奎)가 1805년에 편찬. 서문에는 1800년 무렵 거조암의 상황, 이후 불전과 오백나한상의 중수, 나한재의 개설과 의식문의 필요성, 그리고 고려시대의식문의 입수와 계승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40) 1894년(고종 31)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경상도 각 읍에서 작성한 읍지를 의정부에서 합편한 읍지

41) 1899년에 편찬된 경상북도 영천군(지금의 영천시) 읍지

42) 1918년 한말의 불교학자 이능화가 지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불교역사서.

(1912)十月四日認可...本寺銀海寺之山內末寺目 白興庵 雲浮庵 白蓮庵 瑞雲庵 奇奇庵 忠孝庵 彌勒庵 中巖庵 妙峯庵 鳳棲庵 居祖庵...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등록증⁴³⁾ : 사찰명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

* 국세청 경주세무서 고유번호증⁴⁴⁾ : 단체명 대한불교조계종거조사

* 『永川 銀海寺 居祖庵』⁴⁵⁾ : 창건 및 중건시 추정 건물지, 통일신라~조선에 이르는 174건 174점 출토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헌기록상으로는 ‘거조사(居祖寺)’ 사명(寺名)이 12세기 말 고려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다가 1912년 은해사 말사로 통합되면서 ‘거조암(居祖庵)’으로 바뀌었음은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실증자료에 근거한 ‘거조사(居祖寺)’ 사명을 조계종으로부터 인정받고 2007년에 사찰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2012년에는 세무서에 ‘거조사(居祖寺)’로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발굴조사(2003~2005년)를 통해서 창건 당시에도 상당히 넓은 사역에 불전과 탑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산기슭에 스님이 수행하기 위해서 짓는 암자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런 입지조건과 구성요소로 형성된 역사문화 환경은 ‘거조암’이 암자가 아닌 대중 사찰이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조암(居祖庵)’의 창건 당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 시대부터 ‘거조사(居祖寺)’ 명칭을 사용하였고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20. 7. 3.

문화재위원 ○○○ (인)

43) 2007년 9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발급 받은 사찰등록증(제 2007-1005호)

44) 2012년 1월 16일 경주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

45)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영천 은해사 거조암』 학술조사보고 제82책, 동양출판사, 2007.

의견서

□ 자문개요

- 지정 별 :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 자문내용 :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 명칭 변경

□ 검토의견

거조암은 창건당시의 명칭은 거조사였음이 확인되었다. 그 후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를 조직한 곳이 팔공산 거조사로 여러 문헌에 나오고 있다. 그 후 은혜사에 속하면서 거조암으로 명칭이 격하되었다.

그러나 현재 ‘거조사’로 다시 명칭이 환원되었으나 문화재 명칭만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명칭을 현실에 맞추어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개칭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2020. 7. 3.

문화재전문위원 ○○○ (인)

의견서

□ 자문개요

- 지정별 :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 자문내용 :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 명칭 변경

□ 검토의견

현 은혜사 거조암의 창건은 2007년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말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창건 시 거조사의 명칭이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거조사’가 ‘거조암’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의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가장 이른 기록은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의 『精選 知訥』에서 “去戊申年(1188)早春, 契內材公禪伯, 得住公山居祖寺, 不忘前願...”라는 기록으로 고려시대에 이미 거조사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1478년(성종 9) 편찬된 『東文選』에 수록된 「曹溪山 修禪社 佛日普炤國師 碑銘」에, 조선 중기(1530) 관찬지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2권 「慶尙道 永川郡」편에,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저술 총서인 『靑莊館全書』 「양엽기(盎葉記)」 2 중 海印寺의 藏經에 ‘居祖寺’라는 명칭 사용되었다. 또한 『五百聖衆請文』, 『영남읍지』, 『영천군읍지』 『朝鮮佛教通史』 등 조선후기에서 근대기까지 각종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거조사(居祖寺)’가 거조암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12년 은혜사의 말사가 되면서 변경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변경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07년 조계종으로부터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居祖寺)’로 사명을 인정받았으며, 2012년에는 세무서에 ‘거조사(居祖寺)’로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황이다.

이처럼, 각종 문헌기록에서 ‘거조사’가 확인되는 점과 영산전 건물의 규모가 암자에 들어서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라는 점 그리고 사역 내 발굴조사를 통해 상당히 넓은 사역에 불전과 탑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암자(거조암)가 아닌 대중 사찰(거조사)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명(寺名)은 고려시대부터 19세기까지 약 700년 이상 사용된 ‘거조사(居祖寺)’로 변경하고, 영산전의 문화재명은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20. 7. 3.

문화재전문위원 ○○○

5.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2차)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1.21.) : 부결
 - 시설물의 건립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흥국사길 160
 - 지정일 : 1963. 09. 0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31-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대웅전 보호구역에서 642m, 흥교 보호구역에서 305m
 - 사업내용 : 여수국가산단 중흥2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 여수 중흥산단 실시계획 승인 : '16.11.
 - 여수 중흥산단 실시계획 변경승인 : '20.02.

○ 토지이용 계획

구 분	'21.1차 / 부결	금회
후생지원용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변경없음
생산지원용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변경없음
건축물 허용범위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건축선 토지경계로부터 50cm이상(건물 간 이격거리 100cm)

라. 의결사항

- 부결
 - 진입부 경관 저해(역사 문화 경관 보존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6. 옥천 이지당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충북 옥천군 소재 보물 「옥천 이지당」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12월 보물로 승격된 문화재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음(문화재에서 76m)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이행(관계전문가 3인 이상 의견)

(문화재위원 ○○○) 영향있음.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역사문화환경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종합정비 수립필요

(문화재위원 ○○○) 영향있음.

⇒ 수질개선사업은 타당하나, 현상변경을 최소화하는 범주에 추진, 미시적 보존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문화재전문위원 ○○○) 영향없음.

⇒ 문화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옥천 이지당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이백6길 126
 - 지정일 : 2020. 12.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297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76m
- 사업내용 :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
- 사업목적 : 수질오염 및 녹조문제 개선, 하천 생태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비점오염 저감 등
 - 수공간 : 침강지(2,400m², 수심2.0m), 깊은습지(2,800m², 수심1.0m), 얕은습지(2,700m², 수심0.5m), 침전못(2,700m², 수심0.5m), 자연유하수로(1,500m²) 등
 - 도입시설 : 생태놀이터 및 체험공간 6,000m², 탐방로 1.0km, 수변데크 412m², 전통정자 1개소(H4.8m), 파고라 1개소 등
 - 식재계획 : (교목)소나무 등 15종 694주(최대높이 5.5m), (관목)갯버들 등 6종1만2천주, (초화류)갈대 등 12종 98,300본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 문화 경관 저해(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한 계획으로 하되, 이지당의 관람환경 개선도 추가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7. 대전 회덕 동춘당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대전 대덕구 소재 보물 「대전 회덕 동춘당」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대전 회덕 동춘당
 - 소재지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80 (송촌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전 대덕구 송촌동 192번지 송촌동 일대(용전근린공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55m
 - 사업내용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 대지면적 : 43,761.00m²
 - 건축면적 : 5,920.0179m²/ 연면적 : 143,364.0286m²

- 층수 : 지하 3층, 지상 23~28층/ 최고높이 : 84.60m
- 조경 : 소나무 등 특성수 475주 식재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 문화 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8.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호성전 복원사업(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호성전을 복원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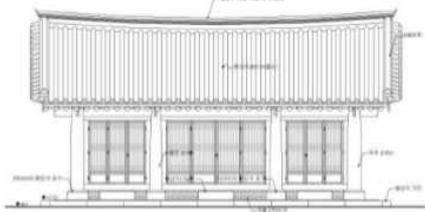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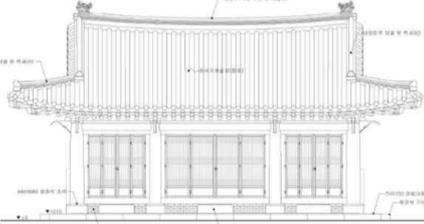
- 문화재 주변 호성전 복원사업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1.21.)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 지정일 : 2017. 08.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5.54m
 - 사업내용 : 호성전 재축 1식 ('20년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소실)
 - 사업비 : 1,000,000천원(국비180,000(문체부) 도비90,000 시비530,000 자부담200,000)
 - 사업계획
 - 배치계획 : 대형화재 우려로 기존 위치에서 후면으로 5.14m 후퇴

- 양식검토

-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는 유리건판을 토대로 작성
- 내부공간 및 양식은 근거자료 부족하여 화재 전 호성전 양식 따름 (기단, 마루, 평면형태, 면적 등)
- 주변건물과의 위계, 현재 대중전각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양성마루 설치하지 않고 마루기와 설치(사도세자 사당일 당시 삼문, 담장으로 둘러싸인 양성마루 팔작지붕이었으나 1988년 중창 이후 일반대중 위패를 봉안한 전각 성격 감안)

구 분	‘21.1차 / 보류	금차
건축면적	49.95m ²	변경없음
이격거리	대웅보전으로부터 15.54m	변경없음
지 붓	맞배지붕, 홑처마	팔작지붕, 겹처마
벽 체	한식회벽	(측면) 하부 화방벽, 상부 목재판벽 (배면) 전체 화방벽
양 식	초익공	변경없음
구 조	한식목구조, 5량가	변경없음
최고높이	6.17m	6.63m
입 면		

라. 현지조사의견(2021.01.29.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호성전은 사도세자의 재각으로 6.25 당시와 근래에 화재로 소실된 상황임
- 신청건물의 기존 위치는 대웅전 및 지장전과 인접하므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위치를 이격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형태와 양식은 사진자료 등의 기록을 통해 최대한 옛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세부 양식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9.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묘사채 건립공사(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양평군 소재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묘사채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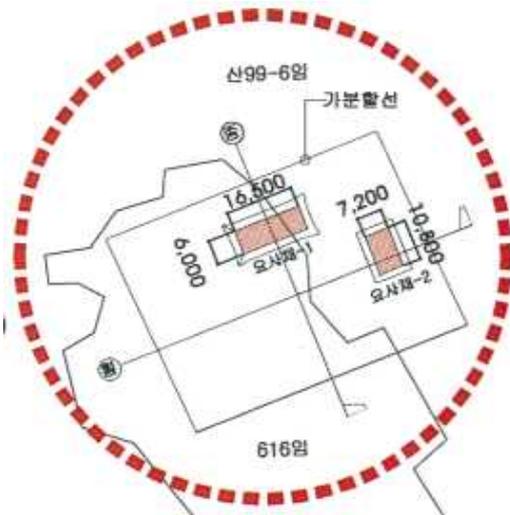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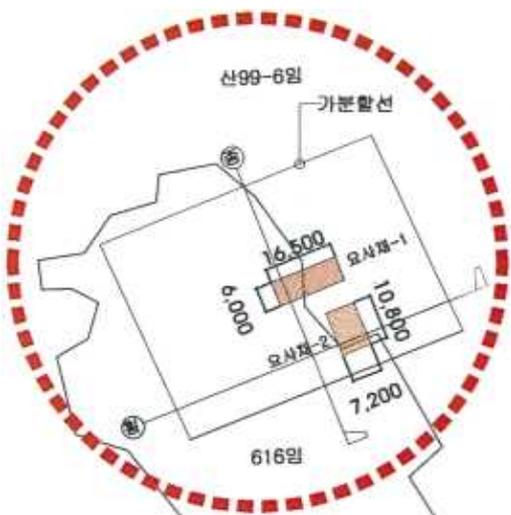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묘사채 건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2.17.) : 부결
 - 원지형 훼손 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산99-6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산99-6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탑 보호구역에서 62m, 비 보호구역에서 30m
 - 사업비 : 700,000천원(자부담)

○ 사업내용 : 요사채 2동 건립

구 분	'20.13차 / 부결	금회
대지면적	3,592m ²	변경없음
건축면적	1동 99m ² 2동 77.76m ²	변경없음
건축양식	1동(정면5칸, 측면3칸, 팔각, 겹처마, 익공식) 2동(정면3칸, 측면3칸, 맞배, 겹처마)	변경없음
최고높이	1동 6.82m 2동 7.13m	변경없음
석축쌓기	216m(H=0.5~4.0m)	135m(H=0.5~3.2m)
토 수 로	204m(300*300)	120m(300*300)
건물배치		

※양평 용문사 산내 암자터 '정밀 학술지표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9. 1. 8. ~ 2019. 3. 14.
- 조사범위 : 경기도 양평 용문사 일원
- 조사결과 (쌍봉암지, 신점리사지1, 구 용문사터)
 - 용문사 원터로 추정되는 평탄지
 - 축대, 담장열, 승탑지, 초석, 옥개석, 팔각 부재, 기와편, 자기편, 금동불상, 사리기 등 확인
 - 고려중기 이전 창건되어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
 - 추가적인 학술조사(시·발굴조사) 필요
 - 사지에 대한 관리와 유적정비 및 복원을 포함한 보존대책 마련 필요

라. 의결사항

- 부결
 - 시·발굴조사 선행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10. 여수 진남관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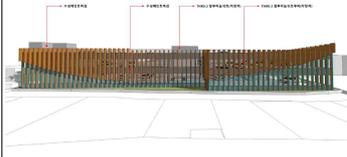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11m), 경사지붕(15m)”에 해당됨.
- ※ ‘20년 11월 1차 자체회의 결과(2020.11.09.)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2.17.)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동문로 11
 - 지정일 : 2001. 04.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앙동 511 외 1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m, 문화재에서 43m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신축

구 분	'20.11월 자체/부결	'20.13차/ 보류	금차
부지면적	2,782m ²	변경없음	변경없음
건축면적	2,145.89m ²	변경없음	변경없음
연 면 적	6,437.67m ²	4,291.78m ²	변경없음
층 수	지상3층	지상2층	변경없음
최고높이	14.7m	9.9m	10.5m
주차대수	208대	160대	159대
입면 형태			

라. 현지조사의견(2021.01.06.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진남관 주변은 민가가 들어서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진남관 주변이고 좌수영성 내부인 점을 감안,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외관·형태 디자인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11.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유허비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에 유허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유허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2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7m
 - 사업내용 : 청구당 조계방 유허비 설치
 - 면적 : 3.3㎡
 - 비신(cm) : 높이150 × 두께24 × 폭55
 - 받침돌(cm) : 90 × 20(높이30)
 - 이수(cm) : 80 × 40(높이40)

- 추진근거 : 족보(1910년, 1959년)와 청구당 비문 기록(1920년)을 근거로 묘소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화왕산 서록 관사 뒤 죽전*’에 유허비를 설치하고자 함.

* 창녕군지(2003년)에 의하면 “만옥정 공원 주변은 대밭이 우거진 산등성이로 이 대밭에는 대원군이 전국적으로 세우게 했던 척화비(斥和碑)가 발견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죽전을 만옥정 공원 내로 추정

라. 의결사항

- 부결
 - 절차·근거 부족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12.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4차)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층수 높아 위압적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9.17.) : 보류
 - 현지조사, 허가사례 검토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0.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1.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8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21-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구분	'21.1.21. / 부결	금 차	비고
대지면적	2,508m ²	좌동	-
건축면적	1,950.00m ²	1,520.902m ²	감429.098m ²
연면적	26,082.02m ²	21,712.9969m ²	감4,369.0231m ²
세대수	153세대	123세대	감30세대
층수/최고높이	지하4층, 지상24층 / 74.4m	지하3층, 지상23층 / 71.9m	감 1층/ 감 2.5m
구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

※ 경관심의 전(접수 시)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49m²
- 건축(연)면적 : 1,260.51m²(26,519.21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 지하2층, 지상35층
- 높이 : 110.4m

=> '20년 1월 2차 자체회의 결과 보류 : 자료보완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경관 심의 결과 및 자료 제출
- 신청사업과 문화재와의 관계자료(주변 현황 등) 제출

※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주변과의 부조화 및 입주민의 조망권 저해 보완
- 상가외부 전면유리 설치에 따른 간판설치계획 보완
-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 재검토(그라데이션 등)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20.10.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지조사 결과, 상주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신청건물 정도 높이의 건물이 없는 상황임
- 다만, 당해문화재가 공원으로 이전된 상황이고 공원과 보호각 전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임
- 당해문화재에 대한 제한은 배후 스카이라인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제한이 유일하나, 현 상황에서는 능선과 수림대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신청건물에 대한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0명, 기권 1명

13.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제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1.02.04.~2021.02.23.(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북도 청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외 7필지
 - 지정일 : 2017. 06. 23.
- (3) 신청내용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붙임 참조)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청고시 제2019-33호, '19.03.11.)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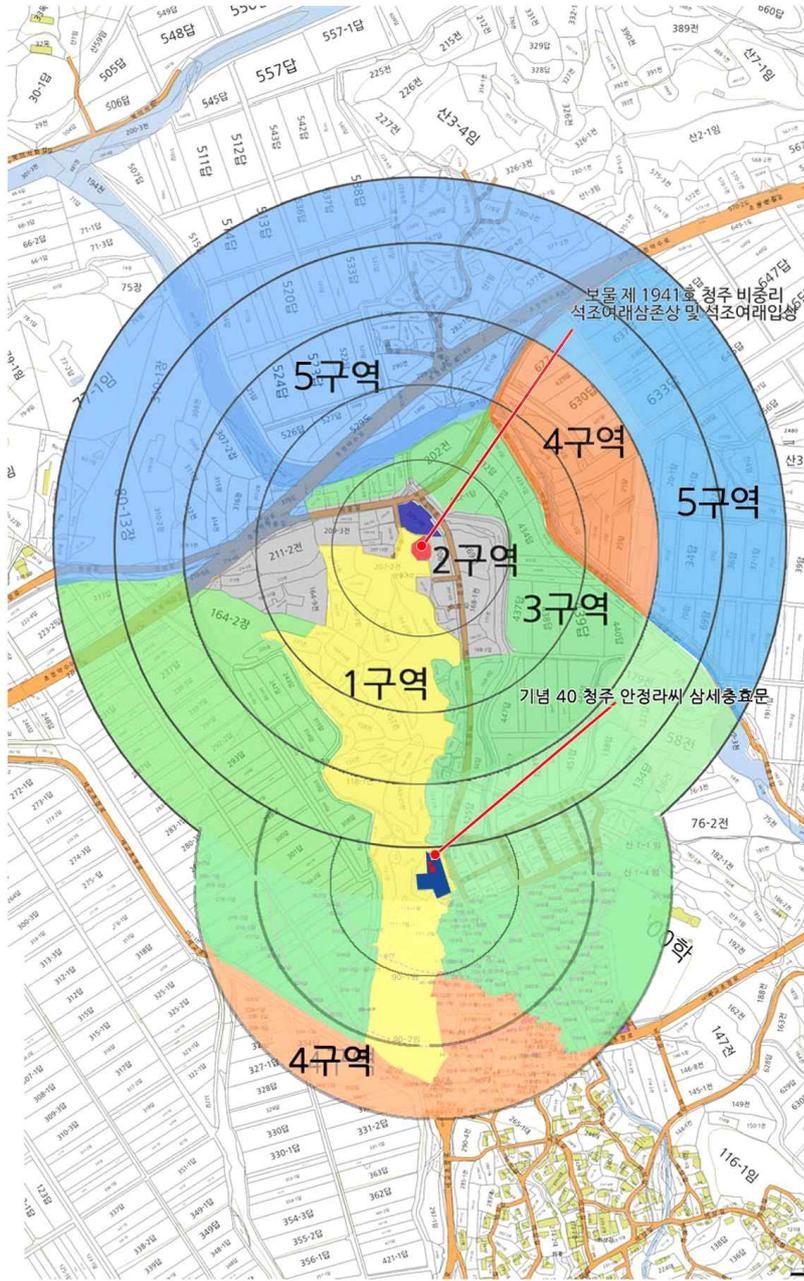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보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물 제 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石
造如來立像)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외

[범 려]

-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 200-500m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0개별심의		
제2구역	0최고높이 5m 이하	0최고높이 7.5m 이하	타하(기 관청)권 일회
제3구역	0최고높이 8m 이하	0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0최고높이 11m 이하	0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안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공동사항	0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0건축물 최고높이 33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0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0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관함: 지붕 색상 - 회색, 벽색 등, 흰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계단, 계층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0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물탱크,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과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0높이 3m 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발판,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하중의 정도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0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만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0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0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14.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보물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1.02.04.~2021.02.23.(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담양군수
- (2) 대상문화재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 남산리 342
 - 지 정 일 : 1969. 06. 16.
- (3) 신청내용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붙임 참조)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문화재청고시 제2019-32호, '19.03.11.)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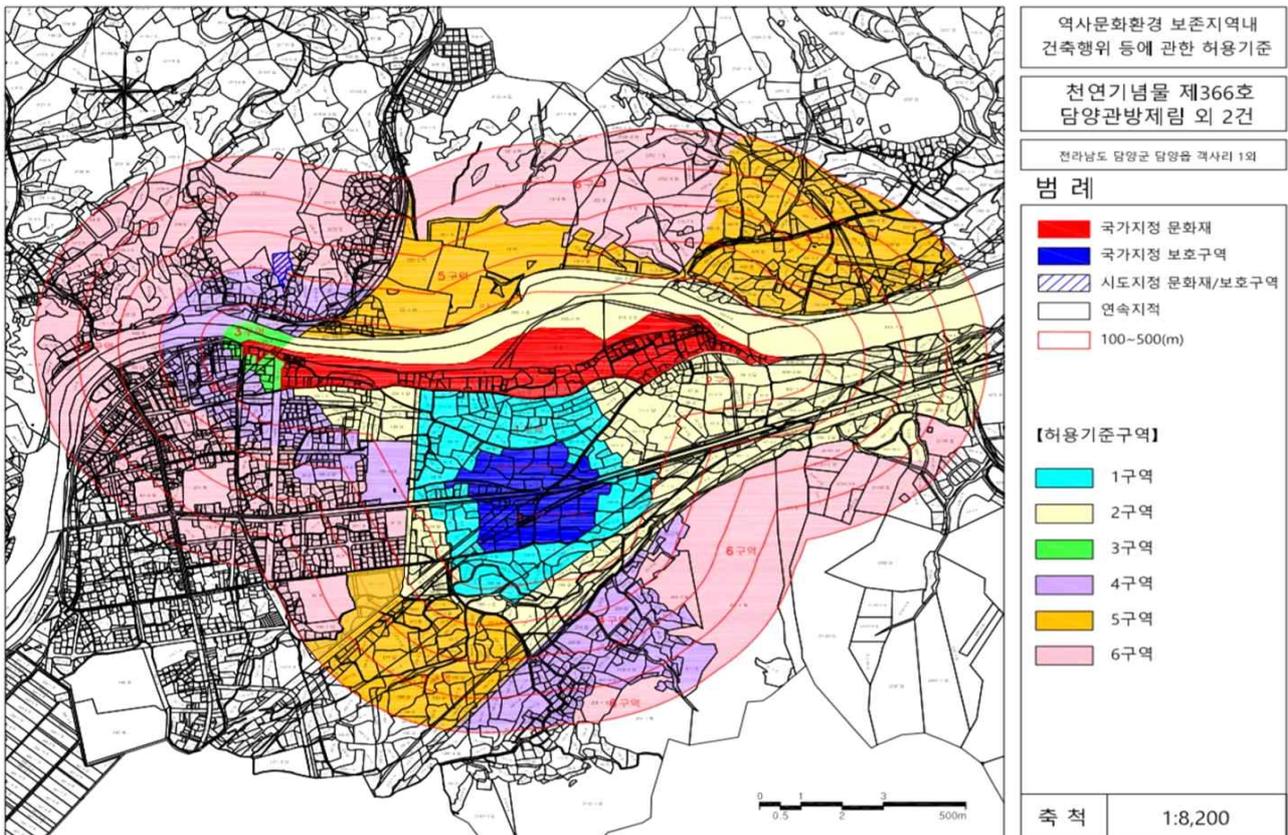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보물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천연기념물 “담양 관방제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8.0m 이하	○ 최고높이 12.0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0m 이하	○ 최고높이 15.0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5.0m 이하	○ 최고높이 18.0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18.0m 이하	○ 최고높이 21.0m 이하
제6구역	○ 담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p> <p>○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p> <p>○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3-015

15. 예산 수덕사 대응전 난간 설치 및 계단 해체보수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보 「예산 수덕사 대응전」 난간 설치 및 계단 해체보수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산 수덕사 대응전」 난간 설치 및 계단 해체보수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예산 수덕사 대응전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지정일 : 1962. 12. 20.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사업예산 : 2020년 30백만원(설계/ 국비 21백만원, 지방비 9백만원)
※ 2021년 예산 : 900백만원(공사/ 국비 630백만원, 지방비 270백만원)
- 사업지침
 - 경사가 심하고 미끄럼 등의 위험성이 큰 대응전 진입계단(성보관 후면)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체보수 설계를 한다.
 - 성보관 후면 석축이 높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등 이의 개선을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안전난간을 설계한다.
- ※ 사업구분 : 지방검토

○ 사업내용 : 난간설치 및 계단 해체보수, 금강보탑 이전

1) 가설공사 : 가설사무소 및 창고 각 1개소/ 가설펜스 L=64m(42경간)/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설치

2) 계단공사

- “가”형 수덕사 경내 전면 진입부 마름돌 계단 해체 후 재설치(전체 신재 교체)

· 해체 : (길이) 12.8m / (폭) 0.9m / (높이) 7.5m

· 설치 : (길이) 21.0m / (폭) 하단 5.85m, 상단 5.8m / (높이) 7.5m

- “나”형 마름돌 계단 해체 후 재설치

· 해체 : (길이) 1.5m / (폭) 0.9m / (높이) 0.55m

· 설치 : (길이) 1.5m / (폭) 0.9m / (높이) 0.55m

3) 난간공사 : 진입계단 좌우 석축 상부 동파이프 난간 해체 설치

- 전체 길이 81m, 54경간(1경간 L=1.5m, H=1.0m)

4) 금강보탑 이전 : 대웅전 앞마당의 금강보탑을 해체한 후 유물전시관
앞마당으로 이전 재설치

라. 자문의견

□ 문화재위원 ○○○, ○○○○○○○대학교 ○○○, 문화재전문위원 ○○○
(2020.05.13.)

○ 계단은 현재의 높이를 기준으로 계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처리하고 가운데에 설치되는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20-150cm정도 되도록 한다.

○ 계단 단의 높이는 보행이 편리하도록 15cm 내외로 하고 부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턱을 설치하도록 한다.

○ 현재의 석재가 계단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신재로 교체하되 밝은색 계통의 화강석으로 정다듬정도로 마감하도록 한다.

○ 계단의 양쪽으로는 보행의 편의를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되 그 재료는 광택이 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하도록 한다.

○ 기존 석축 좌우 상단에는 안전을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 대웅전 전면 아랫마당에 있는 석탑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대학교 ○○○, ○○대학교 ○○○(2020.07.01.)

- 一자형 형태의 대응전 진입계단을 ㄱ자형으로 계획하되 계단 중앙부에 계단참을 신설하고 황화정루 하부 진입계단을 해체 보수할 필요가 있음.
- 대응전 전면 난간을 동파이프로 계획하되 난간살을 세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2000년도에 조성된 금강보탑을 유물전시관 앞마당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면 난간은 설치 안해도 무방함.
 - 계단 난간 계획은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3-016

1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야옹정」 주변 임목 벌채 및 조림 등 허가 신청 28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8건	원안가결 17건 조건부가결 8건 부결 3건	
보물 예천 야옹정	경북 예천 (○○○)	<input type="checkbox"/> 임목 벌채 및 조림 ○ 위치 :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512-1, 513-3 * 제3·4구역(보호구역에서 230m 이격) ○ 사업내용 : 임목 벌채 및 조림 - 벌채계획 · (면적) 51,000㎡/ (재적) 859.36㎡ · (본수) 4,103본/ (잔존본수) 200본/ (운재로) 0.57km - 조림계획 <제곡리 512-1> · (조림면적) 2.7ha/ (조림수종) 낙엽송 2-0 · (조림본수) 5,400본/ (조림시기) 예천군의 조림 계획에 따름(2021년 3~5월) · (기타사항) ha 당 조림 본수 2,000본 <제곡리 513-3> · (조림면적) 2.4ha/ (조림수종) 소나무 용기묘 2-0 · (조림본수) 7,200본/ (조림시기) 예천군의 조림 계획에 따름(2021년 3~5월) · (기타사항) ha 당 조림 본수 3,000본	원안가결	‘21.02.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농사용 창고 신축 ○ 위치 :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1333-27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170m 이격) - 평지붕 5m(1층) / 경사지붕 7.5m(1층) ○ 내용 : 농사용 창고 신축 - 건축면적 : 96㎡ - 연 면 적 : 96㎡ - 건물높이 : 4.7m - 구 조 : 판넬, 칼라강판	원안가결	'21.02.23
보물 공주 계룡산 중약단	충남 공주 (○○○)	<input type="checkbox"/> 저온창고 신축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8번지 * 보호구역 내 ○ 내용 : 조립식판넬 창고 설치 - 건축면적 : 12.58㎡ - 건물높이 : 3.55m - 구 조 : 지붕판넬 위 일반목구조, 금속기와 설치	원안가결	'21.02.23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 상 및 여래좌상	경북 영주 (○○○)	<input type="checkbox"/> 영주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2차) ○ 위치 : 영주시 가흥동 198일원 * 제4구역(문화재로부터 240m 이격) -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사항 : 성질토로 높이 3m이상의 법면, 옹벽 등 발생하는 경우 ※ '21년 1월 자체회의 결과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사업내용 - 수문일체형펌프 설치 · 시설규모 : B8.4×L8.4 · 토출용량 : 130m³/분 · 수 중 축 류 펌 프 (Φ700mm/1GATE 1PUMP×2대) · 유입관로 : Φ1,500mm	원안가결	'21.02.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경기 파주 (○○○)	<input type="checkbox"/> 창고부지조성(2부지)(변경허가)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70-4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개별법) ※ '16년 6월 자체회의 결과 : 허가 ※ '18년 7월 자체회의 결과 : 변경허가 ○ 변경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허가('18)</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지번</td> <td>오금리 70-4, 10</td> <td>오금리 70-4</td> </tr> <tr> <td>대지면적</td> <td>3,116㎡</td> <td>2,764㎡</td> </tr> <tr> <td>건축면적</td> <td>1,075㎡</td> <td>988.99㎡</td> </tr> <tr> <td>연 면 적</td> <td>1,173.8㎡</td> <td>988.99㎡</td> </tr> <tr> <td>동 수</td> <td>(1동) 1층 창고 976.2㎡, 사무실 98.8㎡ 2층 사무실 98.8㎡</td> <td>(2동) 1동 창고 498.4㎡ 2동 제2종근생(제조) 490.59㎡</td> </tr> <tr> <td>최고높이</td> <td>10m</td> <td>8.7m</td> </tr> </tbody> </table> ※ 허가기한 : '20.7.4. ~ '22.7.3.	구 분	기허가('18)	변경	지번	오금리 70-4, 10	오금리 70-4	대지면적	3,116㎡	2,764㎡	건축면적	1,075㎡	988.99㎡	연 면 적	1,173.8㎡	988.99㎡	동 수	(1동) 1층 창고 976.2㎡, 사무실 98.8㎡ 2층 사무실 98.8㎡	(2동) 1동 창고 498.4㎡ 2동 제2종근생(제조) 490.59㎡	최고높이	10m	8.7m	원안가결	'21.02.23
구 분	기허가('18)	변경																							
지번	오금리 70-4, 10	오금리 70-4																							
대지면적	3,116㎡	2,764㎡																							
건축면적	1,075㎡	988.99㎡																							
연 면 적	1,173.8㎡	988.99㎡																							
동 수	(1동) 1층 창고 976.2㎡, 사무실 98.8㎡ 2층 사무실 98.8㎡	(2동) 1동 창고 498.4㎡ 2동 제2종근생(제조) 490.59㎡																							
최고높이	10m	8.7m																							
보물 나주 불회사 대웅전	전북 나주 (○○○)	<input type="checkbox"/> 불회사 진입로 주변환경정비 ○ 위치 : 나주시 다도면 다산리 982, 983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458m 이격) ○ 신청내용 : 진입로 주변환경정비 - 부지면적 : 3,947㎡ - 토공사 : 무근콘크리트끼기, 출입문이설 3개소, 폐기물처리 등 - 배수공 : 집수정설치3개소, 파형강관부설 (15.0m), 원심력수로관부설3개소, 플룸관설치(126.0m) - 포장공 : 황토포장(A=777.0㎡), 잔디블록 포장(A=1,401㎡), 화강석경계석 설치(449.0m) - 부대공 : 목재형방호울타리(132.0m), 조경식재(동백나무16주, 홍단풍 16주), 잔디식재(A=582.0㎡)	원안가결	'21.02.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구례 (○○○)</p>	<p>□ 서굴암 주변정비(2차)</p> <p>○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20m 이격)</p> <p>- 개별심의</p> <p>※ '21년 1월 자체회의 결과 : 부결</p> <p>- 원지형(암반 등) 훼손</p> <p>○ 내용 : 서굴암 주변정비 1식</p> <p>- 사업비 : 500백만원</p> <p>- 요사채 개축</p> <table border="1" data-bbox="555 801 1118 1249">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부결 ('21.1.)</th> <th>금회</th> </tr> </thead> <tbody> <tr> <td>면적</td> <td>46.81㎡</td> <td>56.16㎡</td> <td>변경없음</td> </tr> <tr> <td>높이</td> <td>6.15m</td> <td>6.21m</td> <td>변경없음</td> </tr> <tr> <td>지붕</td> <td>팔작(강판)</td> <td>맞배(기와)</td> <td>변경없음</td> </tr> <tr> <td>구조</td> <td>목구조</td> <td>목구조</td> <td>변경없음</td> </tr> <tr> <td>철거</td> <td>-</td> <td>기존 노후 창고 5동 철거</td> <td>변경없음</td> </tr> <tr> <td>기타</td> <td>-</td> <td>요사채 주변 암반파쇄 5개소</td> <td>요사채 배면 암반파쇄 2개소</td> </tr> </tbody> </table> <p>- 낙석 우려 있는 요사채 배면과 요사채 건립위치 있는 암반 파쇄</p>	구분	기존	부결 ('21.1.)	금회	면적	46.81㎡	56.16㎡	변경없음	높이	6.15m	6.21m	변경없음	지붕	팔작(강판)	맞배(기와)	변경없음	구조	목구조	목구조	변경없음	철거	-	기존 노후 창고 5동 철거	변경없음	기타	-	요사채 주변 암반파쇄 5개소	요사채 배면 암반파쇄 2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2.23</p>
구분	기존	부결 ('21.1.)	금회																													
면적	46.81㎡	56.16㎡	변경없음																													
높이	6.15m	6.21m	변경없음																													
지붕	팔작(강판)	맞배(기와)	변경없음																													
구조	목구조	목구조	변경없음																													
철거	-	기존 노후 창고 5동 철거	변경없음																													
기타	-	요사채 주변 암반파쇄 5개소	요사채 배면 암반파쇄 2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북 청주 (○○○)</p>	<p>□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변경허가)</p> <p>○ 위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6-1</p> <p>* 제1구역(보호구역 인접, 문화재에서 40m 이격)</p> <p>- 개별심의</p> <p>※ '17년 10월 자체회의 결과 : 허가</p> <p>○ 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p> <p>- 시설규모 : 18㎡ (6m*3m, H=2.6m)</p> <p>* 위치변경 : 사찰경내(38m)→범종각밖(40m)</p> <p>※ 허가기한 : '21.12월 말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2.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남 산청 (○○○)</p>	<p>□ 이주단지 대지조성(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운리 산45-20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40m 이격) ○ 사업내용 : 이주단지 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단지조성사업(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깎기 35,482→38,882㎡ 등 변경 - 이주단지수해복구공사(추가) * 준공 후 '20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흙깎기11,073, 흙쌓기8,004, 터파기1,540, 되메우기603, 사토 6,364 · 배수공(m) : L형측구185, 종배수관47, 맹암거239, U형개거157, J형측구2.5, 수로관52/집수정 6EA, 우수맨홀1EA · 구조물공 : 역T형옹벽(H=4.5m)31m, 전석메쌓기27㎡, 그라우팅(H=9.0m) 151공 · 콘크리트포장(T=20cm) 964㎡ · 물탱크(20t), 가드레일 44경간 등 ※ 이주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월 위원회심의 조건부허가 통지(관계전문가 현지 자문의견을 토목설계에 반영) - '18.10월 보완설계도 제출 - '18.11월 허가 통지 - '19.8월 자체처리 변경허가 통지(공사 중 지표수 유출로 인한 사업내용 변경 필요) - '19.12월 자체처리 변경허가 통지(공사 중 주변 도로 유실에 따른 도로 선형의 일부를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2.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평택 (○○○)</p>	<p>□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42, 144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24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 : 개별심의 ○ 내용 :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2동 설치 · 1동 : 16m * 10m, H=8m · 2동 : 19m * 10m, H=5m 	원안가결	'21.02.23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주 (○○○)</p>	<p>□ 기림사 진입로 정비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산1-1입, 산210입, 산2입, 산3입, 4222전, 산423입, 544도 * 보호구역 및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 : 개별심의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입로황토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간=631.0㎡ / - 2구간=122.0㎡ - 3구간=70.0㎡ / - 4구간=50.0㎡ - 5구간=60.0㎡ / - 6구간=162.0㎡ - 7구간=70.0㎡ - 면적 총 합계=1,165.0㎡ 2) 보행매트 설치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매트 설치(T30) : L=167.0m, W=1.2m) 3) 벤치 주변 정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구간 : 목재 데크 설치(T30) 4.0mX10.0, H=0.2m - 벤치 설치(3개소) : 2.0mX0.5m 4) 배수로 정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 배수로 설치 L=33.7m, H=1.0m - 무소음 스틸그레이팅배수로(10개소 설치) : L=52.0m, W=300 5) 목재대문 설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대문 설치 : L=4.5m, H=1.60m 	원안가결	'21.03.1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p>	<p>경북 구미 (○○○)</p>	<p>□ 석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5-1, 산14-5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0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 ○ 내용 : 기존 견치석 석축 해체 후 자연석 석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석축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구간 : L=1.3m, H=0.5m · '1-2'구간 : L=2.7m, H=0~1.3m · '1-3'구간 : L=4.2m, H=1.3~1.5m · '2'구간 : L=13m, H=1.5m - 자연석 석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1'구간 : L=1.3m, H=1~1.45m · '가-2'구간 : L=2.7m, H=0~1m · '가-3'구간 : L=4.2m, H=1.45~1.65m · '나'구간 : L=23m, H=1.65m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3.11</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p>	<p>경기 평택 (○○○)</p>	<p>□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215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 개별심의 ※ '18년 4차 건축분과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내용 :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신청) 폭 7~14.5m, 길이 672m - (기허가) 폭 7~22m, 길이 630m ⇒ 측량 및 민원에 따른 도로폭 등 변경 ⇒ 토지보상 등으로 사업지연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 허가기간: '18.4.23. ~ '20.4.22.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3.11</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부여 무량사 석등, 부여 무량사 극락전</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 부여 (○○○)</p>	<p>□ 무량사 주변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96-1 * 보호구역, 제1구역(석등에서 70m 이격) ○ 신청내용 : 무량사 주변정비 1) 매표소 철거 후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지상1층 - 면적 : (철거) 17.68㎡ / (신축) 20.79㎡ - 구조 : 한식목구조 - 매표소 주변정비 : 토석담장설치, 관리차량 출입문(자동)설치 2) 영산전 주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 석축 및 진입계단 해체보수 - 계단진입부 자연석 박석포장 - 마당 마사토다짐 3)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 약 100m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3.11</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곡성 (○○○)</p>	<p>□ 2021년 태안사 숲가꾸기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숲가꾸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아베기 : 26.0ha * 고사목 및 형질불량목 제거, 간벌 후 임목본수 기준에 의거 실행 - 임내정리 : 11.5ha * 사찰 연접된 산림 하부층에 지엽 및 잡관목을 정리하여 산불확산 방지 - 위험수목제거 6주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3.11</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곡성 (○○○)</p>	<p>□ 동암 주변정비사업(재검토)</p> <p>○ 위치 :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0m 이격)</p> <p>- 개별심의</p> <p>※ '21년 1월 자체회의 결과 : 보류</p> <p>- 현지조사 후 재검토</p> <p>⇒ 신청건물 주변 지형의 절토가 크므로 건물의 배치를 조정하여 절토를 최소화 하고 담장과 석축 등은 축소조정토록 함</p> <p>○ 내용 : 동암 주변정비</p>	원안가결	'21.03.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보류('21.1차)</th> <th style="width: 45%;">변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속채 건립</td> <td>(면적)18.45㎡ (양식)한식목구조 납도리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홀처마 맞배지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 (배치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창고 개축</td> <td>(면적)10.08㎡ (양식)한식목구조 납도리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홀처마 맞배지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석축 및 계단 설치</td> <td>석축 : H=0.4m ~ 1.8m, L=75m 계단 : W=1.2m 1개소</td> <td>석축 : H=0.4m ~ 1.5m, L=43m 계단 : 변경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식 담장</td> <td>H=0.9m, L=42m</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철거</td> <td>화장실 1동, 창고 2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구분	보류('21.1차)	변경	부속채 건립	(면적)18.45㎡ (양식)한식목구조 납도리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홀처마 맞배지붕	변경없음 (배치조정)	창고 개축	(면적)10.08㎡ (양식)한식목구조 납도리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홀처마 맞배지붕	변경없음	석축 및 계단 설치	석축 : H=0.4m ~ 1.8m, L=75m 계단 : W=1.2m 1개소	석축 : H=0.4m ~ 1.5m , L=43m 계단 : 변경없음	한식 담장	H=0.9m, L=42m	삭제	철거	화장실 1동, 창고 2동	변경없음
		구분			보류('21.1차)	변경																
		부속채 건립			(면적)18.45㎡ (양식)한식목구조 납도리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홀처마 맞배지붕	변경없음 (배치조정)																
		창고 개축			(면적)10.08㎡ (양식)한식목구조 납도리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홀처마 맞배지붕	변경없음																
		석축 및 계단 설치			석축 : H=0.4m ~ 1.8m, L=75m 계단 : W=1.2m 1개소	석축 : H=0.4m ~ 1.5m , L=43m 계단 : 변경없음																
		한식 담장			H=0.9m, L=42m	삭제																
철거	화장실 1동, 창고 2동	변경없음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 13건	○○○	<p>□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 13건 탁본 허가신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1년 금석문 탁본조사 - 사업기간 : 2021.1월~12월 - 사업내용 : 경남·부산·울산 지역 금석문 95기 조사 - 예산액 : 500백만원(국비100%) <p>○ 사업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555 808 1118 1615"> <thead> <tr> <th>연번</th> <th>명칭</th> </tr> </thead> <tbody> <tr><td>1</td><td>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국보)</td></tr> <tr><td>2</td><td>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국보)</td></tr> <tr><td>3</td><td>울주 천전리 각석(국보)</td></tr> <tr><td>4</td><td>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보물)</td></tr> <tr><td>5</td><td>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보물)</td></tr> <tr><td>6</td><td>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 * 명문부분</td></tr> <tr><td>7</td><td>창녕 인양사 조성비(보물)</td></tr> <tr><td>8</td><td>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보물) * 대좌 명문부분</td></tr> <tr><td>9</td><td>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 대좌 명문부분</td></tr> <tr><td>10</td><td>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 * 명문부분</td></tr> <tr><td>11</td><td>창녕 영산 만년교(보물) * 부속유물 남천석교비(비지정)</td></tr> <tr><td>12</td><td>사천 홍사리 매향비(보물)</td></tr> <tr><td>13</td><td>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보물) * 석장비</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본수량 : 2부 - 작성기간 : 2021.3월~12월 - 작업방법 : 습식탁본 - 작성자/기술담당자 : ○○○/○○○ 외 3팀 	연번	명칭	1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국보)	2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국보)	3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4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보물)	5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보물)	6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 * 명문부분	7	창녕 인양사 조성비(보물)	8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보물) * 대좌 명문부분	9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 대좌 명문부분	10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 * 명문부분	11	창녕 영산 만년교(보물) * 부속유물 남천석교비(비지정)	12	사천 홍사리 매향비(보물)	13	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보물) * 석장비	원안가결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울주 천전리 각석, 창녕 영산 만년교 남천석교비 총 3건은 제외)	‘21.03.11
		연번	명칭																													
1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국보)																															
2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국보)																															
3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4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보물)																															
5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보물)																															
6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 * 명문부분																															
7	창녕 인양사 조성비(보물)																															
8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보물) * 대좌 명문부분																															
9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 대좌 명문부분																															
10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 * 명문부분																															
11	창녕 영산 만년교(보물) * 부속유물 남천석교비(비지정)																															
12	사천 홍사리 매향비(보물)																															
13	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보물) * 석장비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청양 장곡사 하 대응전	충남 청양 (○○○)	<input type="checkbox"/> 요사채 개축 및 주변 정비 ○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 보호구역 내 ○ 내용 : 장곡사 세심당 개축공사 - 기존 조적식 건물(23.22㎡) 철거 및 RC조 증축(25.92㎡) · (규모) 9.6m×2.7m / (면적) 25.92㎡ · (높이) 2.2m / (구조) 철근콘크리트 · (마감) 콘크리트 위 마름돌 붙임 - 지붕 위 외편 담장(L=13.5m) 설치 - 우측 마름돌 계단 해체 후 재설치 (H180mm×12단)	조건부가결 (전문가 자문 받아 외부 입면 조정)	'21.02.23
보물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	전남 영암 (○○○)	<input type="checkbox"/> 영암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치 :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88-1 일원 * 제1,3,4구역(보호구역에서 355m 이격) - 1구역 : 원지형 보존 - 3구역 : 평지붕(8m), 경사지붕(12m) - 4구역 : 개별법 처리 ○ 내용 :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규모	조건부가결 (도로개설 은 구체적인 계획(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토록 함)	'21.03.11

구분	면적(㎡)	높이	비고
계	186,956		
단독주택	12,598	3층이하	
근린생활	24,528	4층이하	4구역
상업시설	15,220	4층이하	4구역
문화회관	14,521	4층이하	
주차장	14,935		
광장	1,339		
공공공지	1,188		
도로	54,455		1,3,4구역
공원 및 녹지	48,172		1,4구역

- 구역별 편입면적

구분	계	1구역	3구역	4구역
면적(㎡)	40,739	1,899	1,593	37,247
시설	-	녹지 및 도로	도로	근생, 상업 및 도로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북 청주 (○○○)	<input type="checkbox"/> 배전스테이션 구축 지중화 공사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24번지 ~ 북문로1가 49-2번지 일원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4~6m 이격) ○ 내용 : 전력관 지중화사업 - 전력관로 신설 : L=73m, 굴착수량 45.54m ³ (합성수지 파형관 100mm ²) - 접속함 신설 : 보차도용 접속함 2개 (1.3m×1.3m×1.5m), 굴착수량 10.35m ³	조건부가결 (보호구역을 포함 한 전체 사업구간에 대한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실시)	'21.03.11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 (○○○)	<input type="checkbox"/> 삼성각 난간대 설치사업 ○ 위치 :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258번길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10m 내외) ○ 내용 : 삼성각 난간대 설치공사 - 난간설치 : L=11.21m, H=1.0m - 재질 및 색상 : 스테인리스, 은색	조건부가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와 재질을 사용토록 함.)	'21.03.11
보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 (○○○)	<input type="checkbox"/> 표충사 선원 화장실 신축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 제1구역(문화재에서 7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250백만원(지방비) - 사업목적 : 선원(만일루) 화장실 및 샤워실 확보 - 사업내용 : 선원 화장실 신축 · 대지면적 : 19,927m ² · 건물면적 : 53.46m 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한식목구조 · 높이 : 6.68m(지붕 8.24m) · 마감 : 전벽돌쌓기(외벽), 한식기와잇기 (지붕)	조건부가결 (관계전문 가 자문을 통해 건물의 위치 및 높이 등 보완 후 시행)	'21.03.1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 (○○○)	<input type="checkbox"/> 표충사 종무소 철거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 제1구역(문화재에서 3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자부담 - 사업목적 :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 종무소 업무 다른 경내 건물 사용 - 사업내용 : 종무소 철거(117.17㎡/철근 콘크리트 구조)	조건부가결 (진동 등 문화재 안전 대책 수립 후 시행)	'21.03.11			
보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 (○○○)	<input type="checkbox"/> 표충사 템플스테이 2동 정비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25 * 제1구역(문화재에서 40m, 11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654백만원(국비490백만원) - 사업목적 : 시설 노후로 정비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2동 정비	조건부가결 (관계전문 가 자문을 통해 템플스테이 2 전면 데크 및 차양 설치 계획 보완 후 시행)	'21.03.1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비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템플 스테이 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위치 : 구천리 23 · 건물현황 : 지상1층 158.67㎡, 지상2층 112.39㎡, 높이 9.76m, 철콘+한식목구조 · 정비내용 : (지상2층) 벽체 및 인방재, 바닥 해체 보수 </td> </tr> <tr> <td>템플 스테이 2</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위치 : 구천리 25 · 건물현황 : 지상1층 319.83㎡, 지상2층 157.2㎡, 높이 10.55m, 철콘+한식목구조 · 정비내용 : (지상1층, 2층) 벽체 및 인방재 해체보수, 목재 데크 및 차양 설치, 각 방마다 화장실 설치, 담장신설(L=22m)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정비내용	템플 스테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위치 : 구천리 23 · 건물현황 : 지상1층 158.67㎡, 지상2층 112.39㎡, 높이 9.76m, 철콘+한식목구조 · 정비내용 : (지상2층) 벽체 및 인방재, 바닥 해체 보수
구분	정비내용						
템플 스테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위치 : 구천리 23 · 건물현황 : 지상1층 158.67㎡, 지상2층 112.39㎡, 높이 9.76m, 철콘+한식목구조 · 정비내용 : (지상2층) 벽체 및 인방재, 바닥 해체 보수 						
템플 스테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위치 : 구천리 25 · 건물현황 : 지상1층 319.83㎡, 지상2층 157.2㎡, 높이 10.55m, 철콘+한식목구조 · 정비내용 : (지상1층, 2층) 벽체 및 인방재 해체보수, 목재 데크 및 차양 설치, 각 방마다 화장실 설치, 담장신설(L=22m) 등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예천 야옹정	경북 예천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374, 37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95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귀농에 따른 농막 설치 - 규모 : 면적 24㎡(8m*3m*H3.5m) - 용도 : 농사용 농막(기성품 구입 및 설치)	조건부가결 (도문화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행)	'21.03.11																																								
보물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 (○○○)	<input type="checkbox"/> 오죽헌 야간경관 조명사업 ○ 위치 :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오죽헌 일원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오죽헌 야간경관 조명설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타입</th> <th>사양(LED)</th> <th>타공</th> <th>개수</th> </tr> </thead> <tbody> <tr> <td>GL-01</td> <td>450W/6500K</td> <td>-</td> <td>6</td> </tr> <tr> <td>BL-01</td> <td>9W/3000K/110°</td> <td>-</td> <td>10</td> </tr> <tr> <td>FL-04</td> <td>24W/3000K</td> <td>-</td> <td>25</td> </tr> <tr> <td>FL-06</td> <td>13W/3000K</td> <td>-</td> <td>319</td> </tr> <tr> <td>FL-07</td> <td>30W/3000K</td> <td>-</td> <td>34</td> </tr> <tr> <td>IL-01</td> <td>12.5W/3000K</td> <td>-</td> <td>300</td> </tr> <tr> <td>GL-03</td> <td>1W/3000K</td> <td>∅49</td> <td>1</td> </tr> <tr> <td>LAMP</td> <td>60W/3000K</td> <td>-</td> <td>30</td> </tr> <tr> <td>GL-02</td> <td>18W/3000K</td> <td>∅212</td> <td>8</td> </tr> </tbody> </table> * 오죽헌 FL-06 8개소 설치	타입	사양(LED)	타공	개수	GL-01	450W/6500K	-	6	BL-01	9W/3000K/110°	-	10	FL-04	24W/3000K	-	25	FL-06	13W/3000K	-	319	FL-07	30W/3000K	-	34	IL-01	12.5W/3000K	-	300	GL-03	1W/3000K	∅49	1	LAMP	60W/3000K	-	30	GL-02	18W/3000K	∅212	8	부결 (관계전문 가 자문을 통한 문화재 주변 조명 설치 영향 최소화 필요)	'21.02.23
타입	사양(LED)	타공	개수																																									
GL-01	450W/6500K	-	6																																									
BL-01	9W/3000K/110°	-	10																																									
FL-04	24W/3000K	-	25																																									
FL-06	13W/3000K	-	319																																									
FL-07	30W/3000K	-	34																																									
IL-01	12.5W/3000K	-	300																																									
GL-03	1W/3000K	∅49	1																																									
LAMP	60W/3000K	-	30																																									
GL-02	18W/3000K	∅212	8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	<input type="checkbox"/> 데크 설치 ○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40-4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90m 이격) - 원지형 보존 ○ 사업내용 : 건물 우측면 데크설치 - 구조물 종류 : 나무철골데크 - 설치 규모 : 31.5㎡ · 가로 2.1m, 세로 15m, 높이 0.12m	부결 (역사문화 환경 저해)	'21.03.1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강원 철원 (○○○)	<input type="checkbox"/> 농지(전) 조성(2차) ○ 위치 :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9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56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지적/대상면적 : 12,475㎡ / 8,218㎡ - 농지(전) 조성 및 배수정비	부결 (지형변경 과다)	'21.03.1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부결안('21.2월)</th> <th>신청안</th> </tr> </thead> <tbody> <tr> <td>토공</td> <td>절토(18,911㎡), 성토(2,101㎡)</td> <td>절토(11,773㎡), 성토(2,492㎡)</td> </tr> <tr> <td>구조물 공</td> <td>식생용벽블록 (55㎡)</td> <td>식생용벽블록 (55㎡), 자연석 쌓기(277.5㎡)</td> </tr> <tr> <td>배수공</td> <td>집수정(10EA), U형측구(235m), PE 이중벽관 (36m), 토사측구 (185m)</td> <td>집수정(10EA), U형측구(240m), PE 이중벽관 (31.5m), 토사측구 (191m)</td> </tr> <tr> <td>기타</td> <td>코아네트(2,771㎡)</td> <td>코아네트(1,574㎡), 차폐수목식재</td> </tr> </tbody> </table>			구분	부결안('21.2월)	신청안	토공	절토(18,911㎡), 성토(2,101㎡)	절토(11,773㎡), 성토(2,492㎡)	구조물 공	식생용벽블록 (55㎡)	식생용벽블록 (55㎡), 자연석 쌓기(277.5㎡)	배수공	집수정(10EA), U형측구(235m), PE 이중벽관 (36m), 토사측구 (185m)	집수정(10EA), U형측구(240m), PE 이중벽관 (31.5m), 토사측구 (191m)	기타	코아네트(2,771㎡)	코아네트(1,574㎡), 차폐수목식재
		구분			부결안('21.2월)	신청안													
		토공			절토(18,911㎡), 성토(2,101㎡)	절토(11,773㎡), 성토(2,492㎡)													
		구조물 공			식생용벽블록 (55㎡)	식생용벽블록 (55㎡), 자연석 쌓기(277.5㎡)													
		배수공			집수정(10EA), U형측구(235m), PE 이중벽관 (36m), 토사측구 (185m)	집수정(10EA), U형측구(240m), PE 이중벽관 (31.5m), 토사측구 (191m)													
기타	코아네트(2,771㎡)	코아네트(1,574㎡), 차폐수목식재																	
※ 2021년 2월 2차 자체회의 : 부결 - 지형 변경 과다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